

경남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ation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pcheon(陝川)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Korea

송 정 숙 (Song, Jung-So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
| 2.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인문지리적 배경 | 4. 맺음말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경상남도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70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대상으로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과 출판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황, 형태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 1) 문집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76%, 유집과 실기가 24%로 나타났으며, 90%가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었다.
- 2) 문집의 저자를 보면, 합천은 남명 조식이 태어나 자라고 제자를 양성한 곳이지만 남명관련 저술은 간행되지 않았다. 목관으로 간행된 문집의 저자들도 합천에 세거하는 각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목활자본 문집 저자 6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19세기 출생자가 40%, 16세기 출생자가 31%로 이 시기 인물이 대다수이다.
- 4)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34개 성씨 가운데 남평문씨가 가장 많은 6종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다음은 합천이씨·초계정씨·연안차씨가 4종, 진양강씨 등 8개 성씨가 3종 순으로 비교적 여러 성씨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5) 문집의 간행은 현조의 제향공간인 재실이나 선현 추모와 선현의 학습·교육공간이던 누정이나 당, 서사 혹은 종가 등의 개인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혈연공동체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 6)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40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1940년 이후 대폭 줄어들었다. 이로써 목활자본 문집은 조선조 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활발하게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7)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문집은 42%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문집은 사후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간행되지만 유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후에, 실기는 저자 사후 250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 8) 합천과 초계와 삼가에는 종이재료인 닥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문집 간행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쇄자, 즉 각수도 10인이나 확보하고 있었다.
- 9)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를 보면, 70% 이상이 1-2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문집의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니, 1책의 비율이 유집(100%), 실기(70%), 문집(26%)의 순으로 문집이 권책수가 가장 많았다.
- 10) 목활자본 문집의 판식을 분석하니, 1800년대에는 사주단편, 유계, 10항 20자,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가 다수이고, 1900년대 전반 기에는 사주쌍편, 1900년대 후반기에는 상이엽화문어미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要語: 목활자본, 문집 간행, 경상남도 합천군, 목활자, 인쇄 출판의 역사

< ABSTRACT >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some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70 volumes of collections of works printed by wooden movable-type at Hapcheon area in Gyeongsangnam-do Province. The author analyzed type of collections of works, their birth year and the family name of the author, the place and the year, and the publisher of the publication, and the printers of these different 70 kinds of the collections of wor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llections of works demonstrate their forefathers' academic competencies. The types of collections of works were divided into 3 types, Munjip (文集), Yujip (遺集), and Silgi (實記). Of the collections of works 76% were Munjip. The authors were local intellectuals. Of these authors 40% of authors were born in the 19th century. Thirty four lineage groups published collections of works at Hapcheon area. Seventy three percent of the publications were published from 1900 to 1937. In terms of place, 65%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in the worshipping halls for their ancestors. Thirty five percent of the collections of works were published within 50 years after the author had died. Of these 66% of the book printers were from Hapcheon area.

Key words: wooden movable-type printing, printing and publishing of collections of works, Hapcheon area, Gyeongsangnam-do Province, history of printing and publishing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938).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ongjs@pusan.ac.kr)

접수일: 2018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18년 3월 11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7일

서지학연구, 제73집, 205-246, 2018. [https://doi.org/10.17258/jib.2018.73.205]

1. 머리말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조선시대 민간에서는 목판과 목활자 인쇄를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산하였다. 목판인쇄는 한번 판각하고 나면 판목의 수명이 거의 영구적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종이와 먹만 준비되면 대량인출이 가능하고, 수시인출도 가능하다. 목활자는 내구성이 금속활자에 비해 떨어지지만 조성작업에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적게 드는 이점이 있다. 목활자 인쇄는 한번 사용한 활자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판에 비해 판목의 준비와 판각에 시간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적게 드는 이점이 있으므로 매우 경제적인 지식정보의 확산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문집을 간행할 경우, 편찬과 간행 비용이 충분히 마련되고, 배포 범위가 넓어 많은 부수가 필요하고, 장기간 수요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목판에 새겨두고 사회적 요구가 있을 때마다 인출하여 반포하였다. 하지만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혹은 배포의 범위가 제한적일 때에는 목활자로 일정 부수 인출하고 난 뒤 판을 헐어 다시 필요한 다른 책을 인출하였다.¹⁾

이처럼 목활자 인쇄는 목판 인쇄에 비해 저비용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조판하여 인출하였던 인쇄방식으로 소량 다품종 주문 출판이 가능하였던 민간에 의한, 민간을 위한, 민간의 지식정보 확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에서 지방민에 의해 편찬·간행된 목활자본은 지방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역사연구는 시간 중심의 역사였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의 시간에 관심이 있었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제 학문 연구에서도 잃어버린 장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과거에 우리 선조가 살았던 이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였으며, 무엇을 기억하고자 했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에 인물을 기술할 때 성씨와 관향은 반드시 적지만, 어디에 거주하고 활동했는지 공간에 대한 기술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사회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은 ‘경향(京鄕)’이라는 어휘에서도 드러나듯이, 서울[京]인가, 지방[鄕]인가가 관심의 대상이지 지방에서도 어디인지의 구체적인 장소는 관심 밖이다. 이처럼 서울, 즉 중앙과 그 외의 지역은 모두 ‘지방’, 곧 ‘시골’로 양분되어 위계화 되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방은 “국가의 보편성, 동일성으로 환원됨으로써 고유의 가치를 지닌 대체불가능한 차이의 존재가 아닌, 언제나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된다. 이때 지방은 그곳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삶터로서 인간과 다양한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관계의 장으로 의미화 되기보다는 국가 하위 단위라는 텅 빈 표층적 공간으로 의미된다.”²⁾ 이 연구에서는 인간의

1) 송정숙,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68집(2016. 12), 203-204.

2) 차운정, “로컬(리티)의 개념적 이해와 로컬리티 구성요소,” 『로컬리티의 인문학 10년: 소통과 확장』 (한국민족문화원

경험이 투영된 장소가 지닌 고유한 특성과 의미, 즉 장소성을 경상남도 합천이라는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간행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찾아보고자 한다.

1.2 연구 대상과 방법

조선시대 영남지방에서 목활자로 가장 많이 인출하였던 문헌은 문집과 족보였다. 2002년의 연구에 의하면,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506종 가운데 문집(실기 포함)은 301종(61%)으로 가장 많았고, 족보는 156종(31%)으로 그 다음이었다.³⁾ 전통사회에서 양반(兩班), 즉 사족(士族)으로 인정받으려면 사(士)의 조건인 그 집안에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顯祖)가 있어야 하고, 족(族)의 조건인 그 집안의 혈통이 존귀해야 한다. 문집은 학문적 역량이 뛰어난 현조가 있음을, 족보는 집안의 혈통이 존귀함을 증거하는⁴⁾ 자료로서 민간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인기 있는 아이탬이다. 이 연구에서는 문집과 족보 가운데 출판이 더 활발하고 지역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더 잘 드러내 주는 문집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경남지방에서 산청에 이어 두 번째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합천 지역이 지닌 개별성과 독자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로 인출된 문집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가? 문집의 저자는 어느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이며, 어떠한 학문적,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가? 지역사회에서 문집을 간행한 인물들은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며, 무슨 성씨인가? 목활자본 문집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가?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는 어떠하며, 판식은 어떠한가? 등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을 추출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에는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명·저자의 생몰년·성씨와 관향, 학문적 사승관계 등의 서명저자사항, 간행년·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편집자·발행소(처)·인쇄소·인쇄자 등의 간행사항, 권책수·사주(四周)의 종류·광곽의 크기·항자수·어미와 판구·책크기 등의 형태사항, 서·발문 작성자와 간기 등의 주기사항, 출처 등을 기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집의 유형, 서명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경남 합천지역에서 문집을 편찬하고 간행하는 주체, 즉 지역 사회를 지도하는 지식인 계층의 학문적·정치적 지향, 문집 간행시기와 발행소, 인쇄자 등의 대체적인 경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여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소 HK로컬리티인문학연구원 제10회 국내학술심포지엄자료집,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2017.3.10.), 31.
 3)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한국고활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2), 44.
 4) 이수건, “족보와 양반의식,” 『한국사시민강좌(일조각)』 제24집(1999), 33. ; 송정숙(2002), 45-47.

2. 목활자본 문집 간행의 인문지리적 배경

2.1 합천의 자연지리와 역사



<그림 1> 경상남도

경상남도 서북부의 산간내륙지대에 위치한 합천군은 <그림 1>⁵⁾에서 보듯이, 동쪽은 창녕군, 서쪽은 거창군, 남쪽은 의령군·산청군, 북쪽은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에 접하고 있다.

합천군의 자연환경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남쪽으로 뻗어 내려오다가 거창·함양 지역에 험준한 고봉·준령들이 중첩하여 있다. 남강 연안과 삼가지방에는 곡저평야가 넓고, 비교적 넓은 분지가 발달하였다. 가야면·가회면·쌍백면 일부에는 산간분지가 널리 발달했고, 특히 황강 연안에는 하안평야가 발달하였다.⁶⁾

합천군의 역사를 보면, 이 지역은 낙동강에 임한 동부의 초계지역, 황강이 관류하는 합천지역, 남강 상류의 삼가지역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합천지역의 다라(多羅) 또는 대량(大良), 초계지역의 초팔(草八), 신번(新繁)지역의 신이(辛爾) 등의 이름은 문헌에 일찍부터 등장하는 국명들이다. 이러한 나라들은 고령지방의 대가야(大加耶)나 창녕지방의 빛별가야[比自火加耶] 세력권에 속했던 가야연맹의 일원으로, 그 중에서도 합천지역에는 상당히 유력한 나라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는 555년(진흥왕 16)에 창녕의 비사벌(比斯伐)을 병합하고 이곳에 하주(下州)를 둔 데 이어, 562년에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합천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이어서 565년에는 창녕의 하주를 합천으로 옮겨 대야주(大耶州)를 설치하여 백제에 대비하는 거점으로 삼았다. 642년(선덕여왕 11)에 백제의 장군 윤충(允忠)이 대군을 이끌고 대야성(大耶城)을 포위, 공격하자 도독 김품석(金品釋)과 “그 부인[김춘추의 딸]도 죽었다. 이로 인해 김춘추가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⁷⁾ 김품석의 막료로 있던 대야주 사람 죽죽(竹竹)은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⁸⁾

삼국통일 후인 676년(문무왕 16) 대야주는 강양군(江陽郡)으로 강등, 개명되어 삼기현(三岐縣):

5) 경상남도 알아가기, 2018.1.15. 접속, <<https://blog.naver.com/corydalis/20059703770>>

6)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합천군(陝川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http://encykorea.aks.ac.kr/>>.

7) 합천박물관, “삼국시대 대야성 전투,” 합천역사실, 2017.12.15. 접속, <http://mus.hc.go.kr/sub/02_03_02.jsp>

8) “(합천에서) 문화 행사로 해마다 군민의 날인 10월 29~30일에 대야문화제가 열린다. 이는 신라와 백제가 전쟁할 때 대야성에서 전사한 죽죽(竹竹)장군을 기념하는 것이다.” “합천군의 사회문화,” 『두산백과』, 2017.11.20.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2490&cid=40942&categoryId=31643>>

본래 三支縣 또는 麻杖 · 팔계현(八谿縣: 본래 草八兮縣) · 의상현(宜桑縣: 본래 辛爾縣)의 3개 현을 영현으로 거느렸다. 802년(애장왕 3) 순응(順應) · 이정(利貞) 두 대사가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1018년(고려 현종 9) 현종이 조모인 신성왕후[태조비]의 고향이며 현종이 대량원군으로 있을 때 외가인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여 합주(陝州)로 승격시켰으며, 인접한 12개 현이 합주 소속이 되었다. 이 때 강주(康州) 소속이던 가수현(嘉樹縣)과 고려군 소속이던 야로현(冶廬縣)도 합주로 이속되었다. 팔계현은 고려 초에 초계현(草溪縣)으로 개칭되었다가 1334년(충숙왕 3) 이 고을 사람인 정기수(鄭琪守) · 변우성(卞遇成)이 왕실에 공을 세움으로써 군(郡)⁹⁾으로 승격되었다. 의상현은 고려 초에 신변현으로 개칭되었다가 1391년(공양왕 3)에 의령현으로 이속되었다.

1398년(태조 7) 강화도 선원사(禪源寺)에 있던 고려대장경판을 해인사로 옮겼다. 1413년(태종 13)에 합주를 합천군으로 개칭, 강등하고, 삼기현과 가수현을 삼가현(三嘉縣)으로 통합하면서 현을 지금의 삼가지방으로 이전하였다.¹⁰⁾

임진왜란 때는 정인홍(鄭仁弘)이 이 지방 의병을 규합하여 고령 · 성주 등지에서 왜군을 무찔렀다. 승군을 통솔하여 전공을 세우고 전후의 대일외교에도 크게 공헌한 유정(惟政)은 1610년(광해군 2) 해인사 홍제암(弘濟庵)에서 입적하여 부도와 탑비가 현재 해인사에 남아 있다. 1644년(인조 22) 합천의 관민이 황강변에 신라충신죽죽비(新羅忠臣竹竹碑)를 건립하였다.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으로 삼가현이 삼가군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초계군과 삼가군을 합천군에 병합하고 신원면(神院面)은 거창군으로 이속되었다. 1919년 3·1운동 때는 합천 · 대병 · 삼가 · 초계 · 야로 등지에서 쫓겨난 군중에게 일본 경찰이 총을 난사함으로써 많은 애국자가 학살된 이른바 ‘합천학살사건’이 있었다.¹¹⁾

2.2 합천의 인물

합천지역(옛 합천군 · 초계군 · 삼가현)에는 고려초 이래로 많은 토성(土姓)이 있었고, 신라의 죽죽(竹竹), 고려의 정배걸(鄭倍傑)¹²⁾, 정문(鄭文)¹³⁾, 조선의 자초(自超)¹⁴⁾, 조식(曹植) 등이 총절이나

9) 초계군의 성씨는 정(鄭) · 변(卞) · 주(周)이며, 토산물에 다퉈나무[楮]가 포함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초계군.
 10) “경상도 삼가현,” 『大東地志』, 2017.11.20. 접속,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G&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BT_1299A_0320_010_0060>
 11)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합천군(陝川郡),” 2017.11.20. 접속, <<http://encykorea.aks.ac.kr/>>.
 12) 정배걸(鄭倍傑, ?-1051): 초계정씨의 시조로서 일곱 살 때에 시서를 통하였고, 1017년(현종 8) 3월에 지공거(知貢舉) 관원(郭元)의 문하에서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벼슬이 문하시중에 이르렀고 시호는 홍문(弘文)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초계군. 2017.11.20. 접속,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T&gubun=book&depth=5&cate1=G&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BT_1299A_0310_010_0030>
 13) 정문(鄭文, ?-1106): 정배걸의 아들이다. 과거에 올라 벼슬이 형부상서 겸 태자빈객에 이르렀다. 살림을 일삼지

학문으로 명성을 떨쳤다. 또 합천군·초계군·삼가현에 향교가 설치되어 교관이 파견되었으며, 이연(伊淵)·화암(華巖)·신천(新川)·용연(龍淵)·청계(淸溪)·송원(松原)·용암서원(龍巖書院) 등이 건립되어 자제의 교육이 진흥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다.¹⁵⁾

합천 지역 출신 고려·조선시대의 주요인물을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합천지역 출신 중요 인물

	고려시대	조선시대	계
문과 급제자	정배걸(鄭倍傑), 정문(鄭文), 정윤기(鄭允耆), 이순목(李淳牧), 정선(鄭僊), 이공주(李公柱), 정윤의(鄭允宜), 이에(李芮), 정인(鄭綏), 이감(李敢), 정습인(鄭習仁), 변계량(卞季良), 한철충(韓哲沖), 이은(李垠)(14명)	안홍기(安鴻起), 문여령(文汝寧), 권수(權銖), 이양재(李梁材), 주윤창(周允昌), 방유녕(方有寧), 강덕유(姜德裕), 윤경(尹耕), 정희(鄭僖), 조언형(曹彦亨), 이희회(李希會), 김적(金積), 조언경(曹彦卿), 이희민(李希閔), 이인(李認), 전한(全翰), 박소(朴紹), 정편(鄭遍), 박봉(朴鳳), 주이(周怡), 문익성(文益成, 曹), 주박(周博), 김신옥(金信玉, 曹), 박이장(朴而章, 鄭, 義), 문홍도(文弘道, 鄭), 윤선(尹銑, 鄭, 義), 문려(文勵, 鄭), 박사제(朴思齊, 鄭, 義), 강익문(姜翼文, 鄭), 정인합(鄭仁涵, 義), 이일장(李日章), 조정립(趙挺立, 鄭), 조정생(曹挺生), 강대수(姜大遂, 鄭), 윤좌벽(尹佐辟), 허돈(許燾), 조시일(曹時逸), 석지형(石之珩), 조시량(曹時亮), 도여향(都汝姪), 송정렴(宋廷濂), 문헌징(文獻懲), 박의경(朴疑慶), 노석빈(盧碩賓), 정동호(鄭東虎), 윤광리(尹光理), 정국신(鄭國臣), 이돈우(李墩佑), 최규승(崔圭升)(49명)	63
무과 급제자		이양재(李樑材), 윤탁(尹鐸, 義), 박천기(朴天棋), 윤사성(尹思晟), 심자광(沈自光) 등	
절신 (節臣)	한철충(韓哲沖), 권근중(權近中), 이은(李垠)		3
학자		정희(鄭僖), 이희민(李希閔), 박소(朴紹), 안우(安遇), 조식(曹植), 이희안(李希顔), 신계성(申季誠), 문익성(文益成), 전치원(全致遠, 義), 정인홍(鄭仁弘, 曹, 義), 노흠(盧欽, 曹, 義), 안극가(安克家), 조응인(曹應仁, 鄭, 義), 문경호(文景虎, 鄭, 義), 강대수(姜大遂) 등	
승려		자초(自超), 유정(惟政)	2

[조(曹)와 정(鄭)은 조식(曹植)과 정인홍(鄭仁弘) 문인, 의(義)는 임진창의자(壬辰倡義者), 밑줄은 선조후기-광해군대 활동자]¹⁶⁾

위 <표 1>에서 보듯이, 합천 지역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63명의 문과급제자, 20여명의 도학자를 배출하였다.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49명 가운데 선조후기부터 광해군대의 인물이 17명이나

않아서 살고 있는 집이 겨우 바람 비를 가릴 만하였다. 송(宋) 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갔을 때, 황제가 하사한 금과 비단을 시종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모두 서적을 매입하여 돌아왔다. 서경[평양]에 기자(箕子)의 사당 건립을 건의하였다.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초계군.

14) 자초(自超, 1327-1405):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도운 승려이다. 속성은 박씨이며 호는 무학(無學), 당호는 계월헌(溪月軒)이다.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에서 출생하였다.

1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陝川地域의 歷史와 文化』(합천: 합천문화원, 2000), 27.

16) 이 표는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2000), 63의 <표 3> 합천지역 출신 중요 인물]에서 제상·당상관, 당하관은 문·무과급제자와 중복되므로 제외하였다.

되고, 이 가운데 조식과 정인홍의 제자가 9명이나 됨을 볼 때, 합천지역의 정신적 지주는 조식과 정인홍임을 알 수 있다. 조식과 정인홍의 제자양성과 실천을 중시한 기풍의 진작은 많은 당상관, 문과급제자, 학자를 배출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고, 정치적으로는 선조후기부터 광해군대에 집권한 동인·북인정권의 토대가 되었으며, 나아가 일제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¹⁷⁾

조선시대 합천 지역의 대표적 인물인 경상우도 사림의 영수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명 조식(1501-1572)

조식의 집안은 증조인 조안습(曹安習) 때부터 합천 삼가의 관현(板峴)에 살기 시작하였다. 조식은 1501년 경상도 삼가현(지금의 합천군 삼가면)의 토골(兔洞) 외가에서 태어나 5세까지 살다가 부친이 문과에 장원급제 하면서 서울로 옮겨가, 20대 중반까지 주로 서울에 거주하였다. 26세 때 부친상을 당해 고향 삼가로 돌아가 3년 상을 마친 뒤, 30세 되던 해 어머니를 모시고 김해 탄동(炭洞)에 있는 처가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 산해정(山海亭)을 짓고 독서에 힘쓰며 37세 되던 해 어머니의 권유로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되자 어머니를 설득하여 과거를 포기한 뒤 비로소 처사로서 삶을 영위하며 본격적인 학문연구와 덕성함양에 전념하였다. 45세가 되던 1545년(명종 1)의 을사사화로 이립·송인수·성우·곽순 등 가까운 지인들이 화를 입게 되자 세상을 단식하고 더욱 숲을 뜻을 굳혔으며, 마침 모친상을 당함에 삼가로 돌아가 시모살이를 하였고, 상복을 벗은 후에 김해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토골에 계부당(鷄伏堂)·뇌룡사(雷龍舍)를 지어 문인들과 함께 도학을 강론하였다. 이 시기 제자들이 문하에 출입하기 시작했다.

1554년 55세 때 단성현감에 임명되었으나 유명한 단성현감 사직소를 올려 척신정치의 폐단과 비리를 통절히 비판하면서 임금이 크게 분발하여 명신(明新)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대 사림의 훈척공격에 모범을 보인 것이라 하여 조야에 명성이 크게 드러나고 후세까지 칭송되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정인홍·하응도·하항·박제현 등 그 문하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61세 때인 1561년 덕산(지금의 산청군 시천면)의 사륜동으로 거처를 다시 옮기고 산천재(山天齋)를 지어 강학하자, 진주·산청·함양·거창 등의 인근지역은 물론 서울에서 정탁·김효원·최영경·김우용·이정·김면·조원 등이 배우러 왔고, 정구·최황·곽재우·성여신 등도 이들보다 조금 늦게 문하로 들어왔다. 68세 때인 1568년에 올린 『무진봉사(戊辰封事)』에서는 ‘서리망국론(胥吏亡國論)’을 펴 서리의 작폐를 근절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등 나라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사후 대사간에 추증되고 1615년(광해군 7) 영의정으로 증직되었으며, 진주의 덕천서원

1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2000), 62-63.

(德川書院)·김해의 신산서원(新山書院)·삼가의 용암서원(龍巖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1604년(선조 37)에 처음 간행된 『남명집』과 『남명학기유편(南冥學記類編)』·『신명사도(神明舍圖)』·『과한잡기(破閑雜記)』가 있다. 1615년 문정(文貞)이란 시호가 내려졌다.¹⁸⁾

2) 내암 정인홍 (鄭仁弘, 1535-1623)

정인홍의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덕원(德遠), 호는 내암(來庵), 합천 출신이다. 산림(山林)으로서 선조·광해군 대에 북인·조식학과(曹植學派)를 이끌며 정국을 주도했다. 최영경(崔永慶)·오건(吳健)·김우옹(金宇顛) 등과 함께 조식에게 수학하고 그의 수제자로서 학통을 이어받았다.¹⁹⁾

정인홍은 1495년 합천의 야로현에서 출생했으며, 어린 시절 안음[함양 안의]에 은거하던 임훈(林薰)에게 잠시 수학하다가 15세경에 조식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에 수제자가 되었다. 조식으로부터 검(劍)을 물려받았으며, 광해군으로부터 ‘벽립천인(壁立千仞)의 기절(氣節)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과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²⁰⁾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했으나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아 과거를 포기했다. 1573년(선조 6) 김우옹의 천거로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 황간현감이 되었다. 이후 사헌부지평을 거쳐 1581년 장령에 승진하였다. 당파가 동서로 양분되자 다른 남명학과와 함께 동인편에 서서 서인 정철(鄭澈)·윤두수(尹斗壽) 등을 탄핵하려다가 도리어 해직당하고 낙향하였다. 1589년 정여립옥사(鄭汝立獄事)를 계기로 동인이 남북으로 분립될 때 북인에 가담하여 영수(領首)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합천에서 성주에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고, 10월 영남의병장의 호를 받아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이듬해 의병 3,000명을 모아 성주·합천·고령·함안 등지를 방어했으며, 의병 활동을 통해 강력한 재지적(在地的) 기반을 구축하였다. “정인홍은 전승을 보고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대부분 보고하지 않아 군공(軍功)은 남의 땀에 있었으나, 사실인즉 영남에서 의병을 일으킨 가운데에서는 정인홍이 첫째였다.”²¹⁾고 한다.

18) 합천박물관, “남명 조식(1501-1572),” 합천역사실, 2018.1.25. 접속, <http://mus.hc.go.kr/sub/02_03_02.jsp>.

19) 조식은 일찍이 ‘덕원이 있으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 하면서 분신처럼 정인홍을 아꼈다고 한다. 조식은 죽기 직전 평소 차고 있던 칼인 경의검(敬義劍)을 정인홍에게 전해 줄 정도로 그에 대한 믿음이 두터웠고, 정인홍은 평생 의리를 지키며 스승에 화답했다. 신병주, “정인홍(鄭仁弘): 북인의 정치적·학문적 수장이었던 강성의 정치가,” 『인물한국사』, 2017.12.5.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581&cid=59015&categoryId=59015>>.

20) 이희중, “내암집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1.5. 접속,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kyujanggak.snu.ac.kr/home/MOK/CONVIEW.jsp?type=HEJ^ptype=list^subtype=mj^lclass=01^mclass=sclass=^ntype=hj^cn=GR31362_00>.

21) 『大東野乘』, 『亂中雜錄』 1, 임진년 상, 한국고전종합DB, 2018.3.15. 접속, <[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32A_0020_000_0100&solrQ=query%E2%80%A0%EC%A0%95%EC%9D%B8%ED%99%8D%20%EC%A1%B8%EA%B8%B0\\$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C%A0BT_AA\\$solr_toalCount%E2%80%A0\\$solr_curPos%E2%80%A0\\$solr_solrId%E2%80%A0BD_ITKC_BT_1332A_0020_000_0100](http://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dataId=ITKC_BT_1332A_0020_000_0100&solrQ=query%E2%80%A0%EC%A0%95%EC%9D%B8%ED%99%8D%20%EC%A1%B8%EA%B8%B0$solr_sortField%E2%80%A0$solr_sortOrder%E2%80%A0$solr_secId%EC%A0BT_AA$solr_toalCount%E2%80%A0$solr_curPos%E2%80%A0$solr_solrId%E2%80%A0BD_ITKC_BT_1332A_0020_000_0100)>

1602년 대사헌에 승진, 동지중추부사·공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류성룡(柳成龍)이 임진왜란 때 화의를 주장했다는 죄로 그를 탄핵하여 파직하게 한 다음, 홍여순(洪汝諄)·남이공(南以恭) 등 북인과 함께 정권을 잡았다. 이어 류성룡과 함께 화의를 주장했던 성훈(成渾) 등 서인을 탄핵하였다. 북인이 선조 말년에 소북·대북으로 분열되자, 이산해(李山海)·이이첨(李爾瞻)과 대북을 영도하였다.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仁穆大妃)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출생하자 적통(嫡統)을 주장하여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소북에 대항하여 광해군을 적극 지지하였다.

1607년 선조가 광해군에 양위하고자 할 때 소북의 영수 류영경(柳永慶)이 이를 반대하자 탄핵했다가 이듬해 소북 이효원(李效元)의 탄핵으로 영변에 유배되었다. 이어 광해군이 즉위하자 유배 도중 풀려나와 대사헌에 기용되어 소북 일당을 추방하고 대북정권을 수립하였다. 대북정권의 고문 내지 산림(山林)의 위치에 있던 그는 류성룡계의 남인과 서인세력을 추방하고 스승 조식의 추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비방하는 소를 올려 두 학자의 문묘중사를 저지하려 하다가 8도의 유생들에게 탄핵을 받았다. 그리고 성균관 유생들에 의하여 청금록(靑襟錄: 儒籍)에서 삭제되는 등 집권을 위한 싸움으로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1612년(광해군 4) 우의정이 되고, 1613년 이이첨과 계축옥사를 일으켜 영창대군을 제거하고 서령 부원군(瑞寧府院君)에 봉해졌다. 같은 해 좌의정에 올라 궤장(几杖)을 하사받고 1618년 인목대비 유폐사건에 가담하여 영의정에 올랐다. 그는 광해군 때 대북의 영수로서 1품(品)의 관직을 지닌 채 고향 합천에 기거하면서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으로 참형되었다.²²⁾ 그 후 그는 285년 간 역적으로 취급되다가 1908년(순종 2) 1월 30일(양력)에 신원(伸冤)되어 복작(復爵)되었다.²³⁾ 그의 저서는 『내암선생문집』 15권이 있으며, 그가 신원·복작된 후에야 나오게 되었다.

정인홍은 비록 처형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에는 이례적으로 장수한 인물로, 국가에 대한 의리(의병), 왕에 대한 의리(광해군), 스승에 대한 의리(조식)를 일관되게 지켜나갔다. 특히 그의 삶에 있어서 스승 남명과 국왕 광해군은 그가 존재하는 목표이자 이유였다.²⁴⁾

2.3 합천의 책판과 서원

합천 지역의 문화유적은 확인된 예만 604개소로서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합천은 전통문화의 물적 유산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으니, 조선시대 유적이 196건이고, 근대 유적이 234건이나 된다. 사묘(祠廟)가 205개소로 많은 것을 볼 때 유교적 전통이 깊게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아울러

2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정인홍,” 2017.12.5. 접속, <<http://encykorea.aks.ac.kr/>>.

23) 이진표, “의리실천과 구국운동을 중시한 정인홍,” 『한국사상사』. 2018.1.9.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05040&cid=41884&categoryId=55597>>.

24) 신병주, “정인홍(鄭仁弘): 북인의 정치적·학문적 주장이었던 강성의 정치가,” 『인물한국사』.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해인사와 영암사지뿐 아니라 확인된 사지(寺址)만 41개소인 것으로 보아 불교문화도 융성하게 꽃 피웠음을 알 수 있다.²⁵⁾

합천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문화재 가운데 책판과 서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책판과 서원을 통해 합천 지역에서 존송하는 인물과 지역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1 책판

합천지역의 문화재 가운데 책판은 경재 하연의 <경재선생문집책판>, 쌍청당 차운혁의 <쌍청당 실기책판>, 송계 신계성의 <합천 관기리 송계실기책판>, 추담 윤선과 구산 윤탁의 <추담선생문집책판 및 구산선생문집책판>, <영모록 및 박인 무민당집목판>, 한사 강대수의 <한사선생문집책판>, 존양재 송정림의 <존양재선생문집책판>, 안동권씨의 <화산세고책판>, 탐진안씨의 <합천 두방리 탐진세고책판> 등이 전한다.

야로면 야로리의 <경재선생문집책판(敬齋先生文集 冊板)>은 조선시대 세종조의 문신인 경재 하연(河演, 1376~1453)의 시문집을 새긴 책판이다. 하연은 정몽주의 문인으로 1396년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형조판서,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이 책판은 하연의 5세손 하훈(河渾)이 흠어질 원고를 모아서 1609년(광해군 1)에 합천 해인사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때는 하즙(河楫), 하윤원(河允源), 하자중(河自宗), 하연(河演), 하우명(河友明) 5세의 시문으로 편집된 『진양연고(晉陽聯藁)』의 일부분으로 간행되었으며,²⁶⁾ 『경재집』은 5권 3책이다.

청덕면 성태리의 <쌍청당실기책판(雙淸堂實記 冊板)>은 세조 때의 공신이며, 1467년(세조 13) 이시애의 난 때 75세의 늙은 나이로 선봉장이 되어 출정하여 크게 공을 세우고 전사한 쌍청당 차운혁(1393-1467)의 실기를 인출한 책판이다. 이 실기에는 차운혁의 행적과 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일, 서원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으며, 연안차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다.

<합천 관기리 송계실기책판(陝川 館基里 松溪實記 冊版)>은 송계 신계성(申季誠, 1499-1562)의 실기를 인출한 책판이다. 신계성은 송당(松堂) 박영(朴莢)의 문인으로 남명 조식과 매우 친하였다. 남명과 함께 경상우도의 실천적 선비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인 신계성의 행적과 유문을 모은 『송계실기』의 책판은 합천 평산신씨 재정공파 송계공 종중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다. 신계성은 남명 조식과 함께 김해 신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송계실기』 책판은 1815년에 제작되었으며, 총 51장 27매이다.

가회면 함방리의 <추담선생문집책판 및 구산선생문집책판(秋潭先生文集冊板 및 龜山先生文集冊板)>은 조선 선조때의 문신 추담 윤선(尹銑, 1559-1640)과, 윤선의 사촌형으로 1585년 무과 급제

2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2000), 281.

26)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 “藏板閣記,” 『陝川樓亭錄』(합천: 합천군·합천문화원, 2002), 388.

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곽재우 장군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1593년 진주성싸움에서 전사한 무신 구산 윤탁(尹鐸, 1554-1593)의 문집책판으로 구음제에 보관되어 있다. 이 『추담집』은 3권 2책, 『구산집』은 2권 1책이다.

<영모록 및 박인 무민당집 목판(永慕錄 및 朴綱 无悶堂集 木版)>에서 <영모록 책판>은 무민당(无悶堂) 박인(朴綱, 1583-1640)이 아버지 조계(釣溪) 박수종(朴壽宗, 1565-1619)의 유고와 부록 문자를 정리하여 1627년에 제작한 것이다. <무민당선생문집 책판>은 1790년(정조 22) 정월에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가 지은 서문과 1814년 7월에 무민당의 5대손 박성림(朴聖林)이 지은 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90년 무렵부터 간행을 위한 준비를 하여 1814년 무렵에 책판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무민당 박인은 합천 야로 외가에서 태어나 내종숙(內從叔) 내암 정인홍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27세때 과거공부를 그만두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30세 때 이이첨 일파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정인홍에게 편지를 보내 불가함을 주장하였다. 46세 때 남명의 아들 조차마(曹次磨)가 ‘연보’와 ‘사우록’을 부탁하여 54세 때 사우록을 완성하였다.²⁷⁾ 이처럼 인조반정 이후 동계 정은 및 검재 하홍도와 함께 남명학파를 내부적으로 결집하고, 남명의 ‘연보’와 ‘언행록’, ‘산해사우연원록(山海師友淵源錄)’ 등을 벽한정에서 편찬함으로써 남명의 학문과 정신을 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사선생문집책판(寒沙先生文集冊版)>은 강대수(姜大濬, 1591-1658)의 문집 책판이다. 강대수의 자는 학안(學顔), 호는 한사(寒沙), 본관은 진양이며, 당암(黓庵) 강익문(姜翼文)의 아들이다. 합천 임북(林北) 출신으로 내암 정인홍과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의 문인으로 검재 하홍도와 함께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를 영도하였던 인물이다.²⁸⁾ 문집은 모두 7권 4책이며, 1810년 9월에 합천군 용주면 방곡(芳谷)에서 간행되었는데, 강병화(姜秉和)·강기로(姜岐老) 등이 주도하였다.

대병면 유전리의 <존양재선생문집책판(存養齋先生文集冊板)>은 조선 중기의 문신인 존양재 송정렴(宋挺濂, 1612-1684)의 시문을 모은 문집 6권 3책을 새긴 책판이다. 정은(鄭蘊)의 문인인 송정렴은 1655년(효종 6) 과거에 합격한 뒤 예조정랑, 사헌부의 지평·장령 등을 지냈다. 허목(許穆)·조임도(趙任道)·권대운(權大運) 등 주로 남인계열의 인사들과 교류하였다. 고암서원(古巖書院)과 신천서원(新川書院)에 봉향되었다.²⁹⁾ 문집의 서문은 당시 영남학파의 종장인 갈암 이현일(1627-1704)이 지었다. 이 문집은 원고를 백 수십여 년간 간직해 오다가 고종 때 와서 성재 허전의 발문을 붙여서 1901년에 후손들이 간행하였다.

27) “<합천선비> 무민당 박인 할아버지, (고령박씨) 사정공파,” 2018.3.16. 접속, <<http://cafe.naver.com/goyangdegoon/941>>.

28) 강대수: 1612년(광해군 4) 문과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역임했으나, 영창대군의 처형을 반대하다가 죽게 된 정은(鄭蘊)을 구하려다 벼슬이 박탈되고 유배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풀려나와 영변부판관(寧邊府判官)·전주부윤 등을 역임하였다. 『두산백과』, 2018.1.7.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6928&cid=40942&categoryId=33383>>.

2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2018.1.11. 접속,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8538&cid=46649&categoryId=46649>>.

대병면 회양리의 <화산세고책판(花山世稿册版)>은 합천 삼가로 들어 온 권시민과 그 후손 8인의 실기를 관각한 책판이다. 8권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은 안동의 옛지명이다. 그 내용을 보면, 1책에는 권1 권시민(權時敏, 1464-1523)의 『삼괴당실기(三槐堂實紀)』, 권2 권양(權養, 1555-1618)의 『화음실기(花陰實紀)』, 권3 권극경(權克經, 1604-1666)의 『덕암실기(德巖實紀)』, 권4 권감(權鑑, 1629-1688)의 『침연실기(砧淵實記)』, 2책에는 권5 권만의(權萬宜, 1664-1729)의 『죽암실기(竹菴實紀)』, 권6 권태두(權泰斗, 1678-1752)의 『매곡실기(梅谷實記)』, 권7 권태규(權泰奎)의 『국헌실기(菊軒實紀)』, 권8 권상택(權尙澤, 1735-1806)의 『성재실기(星齋實紀)』가 편철되어 있다. 권시민은 삼가에서 출생하였고, 한훤당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483년에 사마시에 등과하고,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나자 은둔하였다. 권극경은 사계 김장생의 문인이고, 권감은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다. 권태규는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과 동춘 송준길을 문묘에 종향할 것을 청하는 상소인 ‘청우암 동춘양선생종향문묘소(請尤菴同春兩先生從享文廟疏)’³⁰⁾를 올렸고, 송병순(1839-1912)은 『화산세고』의 서문을 1896년(고종 원년)에, 권태규의 묘표를 1908년에 지었다. 송병순은 우암 송시열의 9대손으로 충청도 대전 회덕에 거주하는데, 이들과 교유 및 문자 왕래가 있는 것을 보면, 대병면 회양리의 안동권씨 문중의 학문적·정치적 지향은 기초학파로 우암 송시열의 노론계로 파악된다. 권말에 현손 권명희가 1908년에 쓴 발문이 있다.

<합천 두방리 탐진세고책판(陝川 頭方里 耽津世稿 册版)>은 탐진안씨 안극가(安克家, 1547-1661)의 시문과 증조 안우(安遇, 1449-1527)의 시를 모은 것으로 4권 2책이다. 권1-2는 안우와 관계된 글을 모은 『노계선생일고(蘆溪先生逸稿)』이다. 안우는 김종직(金宗直) 문인으로 김굉필(金宏弼), 남효온(南孝溫) 등과 교제하였는데, 후에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권3-4는 안극가의 시문을 모은 『뇌곡선생유고(磊谷先生遺稿)』이다. 안극가는 이정(李楨)의 문인으로 임진왜란 때 부형이 적병과 싸우다가 학살을 당함에 적진에 돌입하여 시신을 거두었다. 왜병이 그 충효에 감복하여 그 마을 앞에 ‘忠孝里’라 세 글자를 쓰고 물러갔다고 한다.³¹⁾ 탐진안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간행 필사본 『노계선생실기』에는 ‘崇禎紀元後四己酉八月日’에 김기찬의 서문이 찬술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는 서기 1849년이다.

합천에 소장되어 있는 문집³²⁾ 책판의 저자는 하연(1376-1453)과 차운혁(1393-1467), 안우(1449-1527), 권시민(1464-1523), 신계성(1499-1562), 윤탁(1554-1593), 안극가(1547-1661), 윤선(1559-1640), 박수중(1565-1619)과 박인(1583-1640), 강대수(1591-1658), 송정립(1612-1684) 등으로 합천에 자리잡은 여러 문중에서 후손들이 현조의 유문을 모아 문집을 간행하기 위해 책판을

30) 權泰奎, “請尤菴同春兩先生從享文廟疏”, 『菊軒實紀』, 『花山世稿』 권7. 송시열은 1756년(영조 32) 2월 23일 영조의 명으로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그해 송준길과 함께 성균관 문묘에 종사되었다.

31) 김은정, “탐진세고 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1.12. 접속,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kyujanggak.snu.ac.kr/home/HEJ/HEJ_CGH_2009_05.jsp?ptype=class`subtype=cgh`lclass=01>.

32) 합천에서 목판으로 간행된 문집은 현재 책판이 합천에 보관되어 있는 문집으로 한정하였다.

관각한 사례들이다. 합천의 대표적 인물인 남명 조식이나 내암 정인홍 문집의 책판은 합천에서 볼 수 없다.

이 가운데 남명 조식의 절친인 밀양 출신의 신계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천 출신이며, 무과급제한 무신은 이시애의 난 때에 전사한 차운혁과 임란때 진주성싸움에서 전사한 윤탁의 2인이다. 남명의 절친이거나 정인홍 문인으로 남명학파를 이끌었던 사람은 신계성, 박인, 강대수로서 정치적으로는 북인계이다.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자 합천의 유림은 노론이나 남인으로 당색을 바꾸기도 하였다. 삼가의 안동권씨 문중은 기호학파인 송시열의 후손과 교류하여 정치적으로 노론을 지향했으며, 송정렴은 조식과 이황 양 문하에서 수학했던 동계 정은 문인으로 남인과 교류하여 정치적으로 남인을 지향했다고 파악된다.

합천읍 금양리의 중사동은 합천이씨와 파평윤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 주자영정(朱子影幀)을 모시는 자양강당이 있다.³³⁾ 이는 합천 유림이 주자성리학을 존중하고 있다는 상징으로 이해된다.

2.3.2 서원

조선시대 합천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인 향교는 1411년(태종 11)에 창건된 야로면 구정리의 합천향교를 비롯하여 1628년(인조 6)에 창건된 초계면 초계리의 초계향교, 삼가면 소오리의 삼가향교가 있다.

조선 중기 이후 합천에서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은 울곡면 청계서원, 삼가면의 용암서원, 봉산면 옥계서원, 대병면 송호서원, 쌍책면 옥전서원, 청덕면 덕원서원 등이 있다.

청계서원은 1564년(명종 19) 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조선 명종 때의 학자 황강 이희안(李希顔, 1504-1559)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이희안은 초계출신으로 본관은 합천이며, 교리 이희민(李希閔)의 아우이고, 김안국(金安國)의 문인이다. 1702년(숙종 28)에 임진왜란 때 초계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운 전치원과 이대기를 추가 배향하였다.

용암서원은 남명 조식의 학문과 사상을 따르고 추모하기 위해 1575년(선조 9) 삼가에 회산서원으로 세워졌는데, 왜적의 침입으로 훼손되자 1603년(선조 36) 향천으로 옮겨 향천서원을 건립하였고, 1609년에 용암서원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으며, 1987년 합천댐이 조성되면서 그 터도 수몰되었다. 2007년 4월 25일 합천군에서 삼가면 뇌룡정 옆에 터를 마련하여 복원하였다.

용주면 손목리의 용연서원(龍淵書院)은 1658년(효종 10) 지방유림의 공의로 박인(朴綱)의 학문

33)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 『陝川地名史』 (합천: 합천문화원, 1998), 103.

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고사(孤查)에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으며, 1691년(숙종 17) 사액되었다. 1736년(영조 12)에 칠봉산 아래에 옮겼으며, 그 뒤 1871년(고종 8)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었다가, 1930년에 지금의 조동(釣洞, 용주면 손목리)으로 옮겼다.³⁴⁾ 이 서원에서 <영모록 및 무민당집책판(永慕錄 및 無悶堂集冊版)>을 보존하고 있다.

옥계서원은 1725년(영조 1)에 율곡 이이(李珣)의 도덕과 학행을 추모하고 율곡 이이가 손수 쓴 『격몽요결(擊蒙要訣)』과 『해동연원록(海東淵源錄)』 등을 보관하고자 세웠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린 것을 1867년(고종 4) 장소를 옮겨 다시 지었다. 그 후 합천댐 수몰지역으로 되어 1986년 다시 건물을 옮겨 복원하였다. 이 서원은 율곡 이이를 비롯하여 윤병계, 최두남, 위백규, 박준흠, 최유윤을 추가 배향하고 있다.

송호서원은 고려 의종, 명종 때의 문신으로 무신집권기에 문무를 겸한 남평문씨 충숙공 문극겸(文克謙, 1122-1189) 을 제향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 말년에 문극겸의 6세손 문근(文瑾)이 이성계 일파의 세도를 피해서 합천으로 퇴거하면서 문극겸을 대병면의 송호서원에 모셨다. 대병면 대지리는 남평문씨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으로 송호서원은 1777년(정조 1) 삼가현 역평에 창건되었다가 1871년(고종 8) 철거되었고, 다시 1957년에 복원되었다. 합천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1985년에 옮겨 복원하였다.

옥전서원은 1799년(정조 23) 초계 유림들이 발의하여 고려 전기의 학자이자 초계 정씨 시조인 정배걸(鄭倍傑, ?-1051)을 향사하기 위해 1807년(순조 7)에 옥산사를 건립한 데서 비롯되었다. 1872년(고종 8) 옥산사가 철폐된 뒤 후손들이 봉향하다가 1981년 유림에서 정배걸 선생이 강학하던 곳에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덕원서원은 고려 공민왕 때 문과 급제한 이후 정몽주(鄭夢周)·이색(李穡) 등과 함께 명성을 떨치던 유학자 문절공 운암 차원부(車原頰, 1320-?)와 조선 세조조의 무신으로 이시애의 난 때 선봉대장으로 싸우다 전사한 쌍청당 차운혁(車云革, 1393-1467)을 배향한 곳으로 처음에 호남 승평에 세워 오천서원(鰲川書院)이라 했으나, 그 후 유림에 의하여 1806년(순조 6)에 이관하여 덕원서원이라 하였다. 1871년(고종 8) 서원철폐령에 따라 자진 철폐하였다가 1902년(광무 6)에 유림이 다시 개수 복원하였다.³⁵⁾ 연안차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다.

합천지역에는 1785년경에 편찬된 『합천군읍지』에 서원 이름이 나오지만 서원철폐 이후 복원되지 못한 서원으로는 이연서원, 화암서원, 신천서원, 명곡서원 등이 있다.

가야면 매안리의 이연서원(伊淵書院)은 1587년(선조 20)에 지방 유림의 공의로 김굉필(金宏弼, 1454-1504)과 정여창(鄭汝昌, 1450-1504)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고, 1660년(현종 1)에 사액되었다.³⁶⁾ 1871년의 서원철폐로 훼손되자 향사를 김굉필이 어린 시절 독서와 수양에

34)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2002), “龍淵書院記,” 1342-1343.

35) 합천박물관, “합천의 향교와 서원,” <http://mus.hc.go.kr/sub/02_03_02.jsp>, 2018.2.2. 검색

36)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 합천군.

전념하던 소학당(小學堂)에서 다례로 치루었다. 1998년에 사당 송현사(崇賢祠)를 건립하여 향사드리고 있다.³⁷⁾

야로면 돈평리[현 야로리]에 있었던 신천서원(新川書院)은 1624년(인조 2)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문효공 경재 하연(河演, 1376-1453)과 셋째 아들 하우명(河友明, 1413-1493)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였다. 1684년(숙종 10)에 사액되었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1871년(고종 8)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지금까지 복원하지 못하였다.³⁸⁾ 하지만 타진당(妥眞堂)³⁹⁾에 하연과 부인 성산이씨, 아들 하우명의 진영을 모시고 있다. 원래는 하우명이 부모 화상을 그려서 시흥 신천동에 있던 하연의 묘소 주위에 영당을 지어 모셨는데, 그 후에 하연의 진영도 함께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후에 5세손 하훈이 종친과 상의하여 합천으로 이관하고 예조에 아뢰어 1615년(광해군 7)에 ‘타진’이라 사액되었다.⁴⁰⁾ 타진당의 장관각에는 하연의 『경재선생문집』 책판이 보관되어 있다.⁴¹⁾

묘산면 화양리의 화암서원(華巖書院)은 1653년(효종 4)에 박소(朴紹, 1493-1534)를 기리기 위해 지역 유림의 발의로 창건되었으며, 1727년(영조 3)에 사액되었다. 박소는 자가 언주(彦胄), 호는 야천(冶川),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김굉필의 문인이다. 1519년(중종 14)에 문과에 장원급제한 후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과 왕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산간으로 있을 때 김안로 등 훈구파의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물러난 후 외가가 있는 합천으로 내려와 학문에 전념하였다.⁴²⁾ 사후 영의정으로 추증되고, ‘문강(文康)’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야로면 정대리에 있었던 명곡서원(明谷書院)은 1700년(숙종 26)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배일장(裴一長)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871년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였다.⁴³⁾ 이로 볼 때, 합천 유림의 학문적 연원은 한훤당 김굉필, 일두 정여창, 남명 조식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합천의 서원 가운데 사액서원은 하연(河演)과 셋째 아들 하우명(河友明)을 배향하는 신천서원, 김굉필과 정여창을 향사하는 이연서원, 조식을 향사하는 용암서원, 박소를 향사하는 화암서원의

37) “이연서원(伊淵書院),” 서원이야기, <http://eyseowon.alltheway.kr/?doc=sub_02>.

38)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신천서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3439>>.

39) 타진당은 처음 1615년(광해군 7)에 합천군 야로면 구정리에 건립했었는데 1922년 야로면 돈평으로 옮겨 새로 중건하였다. 문효공 하연과 부인 이씨, 아들 하우명의 진영을 모신 곳이다. 타진당은 진영을 편안하게 모신 집이란 뜻인데, 문효공 부부를 배향한 타진당이 전국 도처에 산재되어 있다. 충북 청원에 우록서원, 전북 무주 무풍에 백산서원, 경남 합천에 신천서원, 전남 광양에 타진당, 경북 신령에 무원서원 등이다.

40) 하연이 5세손 하훈의 꿈에 나타나, “내가 소래산(蘇萊山) 암석 사이에 오래 피곤하다” 하여 영당을 가서 보니, 도적이 그림을 탐내어 지고 가다가 무거워 못가고, 이는 천하 명제상 바위라 기록하였다 한다. 종친이 상의하여 합천으로 이관하였다.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2002), “妥眞堂記,” 386.

41)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2002), “藏板閣記,” 388.

42)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301호, 합천 화양리 야천신도비(陝川 華陽里 冶川神道碑) 해설,” 2018.3.12. 접속, <<http://aejiri.tistory.com/905>>

43)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명곡서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8210>>.

4곳이다. 1871년(고종 8) 3월 9일, “사액서원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 대해 한 서원 외에 중첩하여 설치된 것은 예조판서가 대원군에게 품정하여 신주를 모신 서원을 제외하고는 철폐하라”⁴⁴⁾는 고종의 명령에 따라 합천의 모든 서원은 철폐되었고 이후 용암서원만 복원되었다. 합천과 무관한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은 율곡 이이를 향사하고 있는 옥계서원이 유일하다. 인조반정 이후 관료가 막힌 복인계의 합천 유림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당색을 노론으로 바꾸었음을 천명하기 위해 노론이 존봉하는 인물인 율곡 이이를 배향하는 서원을 건립한 것으로 파악된다.

3.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 경향 분석

3.1 문집의 유형 분석

문집(文集)은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문장이나 시부 등을 찬집한 것으로 합고류(合稿類)·유집류(遺集類)·전집류(全集類)·실기류(實記類) 등을 포괄한 것으로 보았다.⁴⁵⁾ 이는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합고, 유집, 전집, 실기로 다섯 구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문집의 하위범주를 문집, 유집, 실기로 세 구분하고, 합고와 전서는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합고는 저자 2인 이상의 시문이 합편되는 경우인데, 이는 유집이나 실기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집은 1인의 시문이 여러 차례 편찬, 간행되는 경우에 후일에 모두 모아서 전집의 형태로 편찬되어 양은 방대하지만 문집 가운데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에 해당하므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문집이나 유집, 실기 모두 저자 1인의 시문이면 별집, 2인 이상의 시문이면 합집으로 구분하였다. 문집에 실린 내용이 일반적으로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이 함께 실리지만, 시만 모아놓은 경우에는 시집으로 따로 구분하였다.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70종의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44) 『고종실록』, 권8, 고종 8년(1871) 3월 9일 기해.

45) 유집류는 유고·유집·일집(逸集)·일고(逸稿) 등이 이에 속하는데, 유고(집)는 유문(遺文)을 모은 유문집이라는 뜻이고, 일고(집)는 저작자의 작품이 전란이나 기타 재화로 인하여 없어지고 남은 잔편(殘篇)을 수집, 편찬할 때 붙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 유고나 일고는 저자의 자편(自篇)일 수 없고 후인(後人)이 찬집한 것이 되며, 분량은 대개 1, 2책 정도이다.

전집류는 저술을 많이 남긴 큰 학자의 모든 저작물을 모아 편집한 책을 말하는데, 전집(全集)·전서(全書)·대전(大全)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성호선생문집(星湖先生文集)』·『도산전서(陶山全書)』와 같이 쓰임이 보통이나, 한 개인의 저작 전집을 ‘대전’으로 붙인 것은 송시열(宋時烈)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유일한 것이다. 실기류는 주로 피전자(被傳者)의 행적을 주로 하고, 그가 남긴 시문과 후인들의 송찬(頌讚)·시문을 합하여 간행하는 것이다. 정확한 의미로는 전기류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집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어 사용된다. 실기는 본인의 저술은 별로 없고 후인들의 송찬·시문 및 사적(事跡)이어서 사실이 더러 과장되었거나 허구성이 짙은 경우도 있다. [류탁일, “문집,”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표 2>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

구분		종수	%	문집명(종수)	
문집 (文集)	별집	시문	44	62.9%	구주선생문집(鷗洲先生文集), 강재문집(强齋文集), 겸산문집(謙山文集), 경승재문집(敬勝齋文集),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경계선생문집(敬齋先生文集), 금리문집(錦里文集), 금애집(錦厓集), 남계선생문집(柑溪先生文集, 2종), 내암선생문집(來庵先生文集), 노백헌선생문집(老栢軒先生文集), 노과선생문집(蘆坡先生文集), 농산문집(農山文集), 당암선생문집(愨庵先生文集), 동천문집(東泉文集), 몽관집(夢關集), 삼주산생문집(三洲先生文集), 서강선생문집(西岡先生文集), 설학선생문집(雪壑先生文集), 소심정문집(小心亭文集), 송풍재선생집(松風齋先生集),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약양집(岳陽集), 연파문집(淵坡文集), 오산선생문집(吾山先生文集), 오산집(五山集), 오파문집(梧坡文集, 2종), 옥간집(玉澗集), 외암문집(畏菴文集), 운계집(雲溪集), 운산문집(輪山文集), 입재선생문집(立齋先生文集), 정산선생문집(靖山先生文集), 조암선생문집(釣巖先生文集), 죽파집(竹坡集), 창수집(蒼樹集), 창와문집(菖窩文集), 창주선생문집(滄洲先生文集), 해사집(海史集, 2종), 향계선생문집(香溪先生文集), 혁림재집(赫臨齋集)
		부록	3	4.3%	내암선생가장(來庵先生家狀), 노백헌선생문집부록(老栢軒先生文集附錄), 한사선생연보(寒沙先生年譜)
		시	1	1.4%	악견시집(嶽堅詩集)
	합집	시문	3	4.3%	류하연방집(柳下聯芳集), 용산범국회록(龍山泛菊會錄), 파산세고(坡山世稿),
		시	2	2.9%	농암회갑시(農菴回甲詩), 수서시(壽瑞詩)
유집 (遺集)	별집	8	11.4%	난초유고(蘭樵遺稿), 눌수유고(訥叟遺稿), 매하유고(梅下遺稿), 사미선생유집(四美先生遺集), 수拙齋유고(守拙齋遺稿), 아호유고(鵝湖遺藁), 운포일고(雲圃逸稿), 월와일고(月窩逸稿)	
	합집	0	0.0%		
실기 (實記)	별집	7	10%	임헌실기(林軒實記), 고사선생실기(孤查先生實記), 구담선생실기(龜潭先生實記), 구암실기(龜嶼實紀), 백촌선생유사(白村先生遺事), 황강선생실기(黃江先生實記), 후지당실기(後知堂實記)	
	합집	2	2.9%	육효록(六孝錄),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	
계		70	100.0%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유형을 보면, <문집: 유집: 실기 = 53종(75.7%):8종(11.4%):9종(12.9%)>의 비율이다. 이로 볼 때 <문집: 유집+실기 = 53종(75.7%):17종(24.3%)>로 약 3:1의 비율이다. 저자의 시문이 주를 이루는 문집이 전체 70종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53종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저자의 시문이 전란이나 화재 등으로 많이 없어지고 난 후 남아있는 글을 수습하여 편찬한 유집이나 저자의 글은 적고 저자의 행적에 관한 글이 주류를 이루는 실기도 1/4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과 2인 이상의 시문을 모은 합집의 비율을 보면, <별집: 합집 = 63종(90%):7종(10%)>로 9:1의 비율이다. 이로써 90%에 해당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집이 1인의 시문을 모은 별집이며, 문집에 실린 글의 종류가 운문인 시(詩)만 모은 시집은 3종(4.3%)에 불과하고, 67종(95.7%)은 운문인 시(詩)와 산문인 문(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은 대부분 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볼 때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을 보면, 문집이 유집과 실기보다 3배 많고, 90%는 1인의 저작으로 된 별집이고, 내용은 거의 대부분인 약 96%가 시문(詩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문집은 목판본으로 간행하고 부록이나 부록에 편차되는 연보를 목활자로 인출한 것이 특이하다. 『한사선생연보(寒沙先生年譜)』와 『노백헌선생문집부록(老栢軒先生文集附錄)』이 그 보기이다. 『한사선생연보』는 한사 강대수(姜大濬, 1591-1658)가 한평생 동안 지낸 일을 연월순(年月順)으로 적은 기록인 연보이다. 강대수는 합천 임북(林北) 출신으로 내암 정인홍과 한강(寒岡) 정구(鄭述)·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문인으로 그의 『한사선생문집(寒沙先生文集)』 7권4책을 1810년 목판으로 인출하였다. 그후 문집 간행할 때 빠진 연보를 1899년 거창 두방재(斗芳齋)에서 목활자로 인출하고, 그 10년 뒤인 1909년에 합천 울곡면 노양리의 안동권씨 재실인 노양재(魯陽齋)에서 다시 목활자로 인출하였다. 목판으로 인출한 문집은 필요할 때마다 먹과 종이를 준비하여 인출할 수 있지만 목활자로 인출한 연보는 일정 부수를 인출하고 나면 판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다시 조판하여 인출하여야 하므로 연보는 10년 간격으로 다시 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내암 정인홍의 문집은 1908년 신원되고 난 이후에 목활자로 『내암선생문집(來庵先生文集)』과, 『내암선생가장(來庵先生家狀)』을 따로 간행하였다. 『내암선생문집』은 정인홍 가장(家藏) 초고본과 실록, 문집 등의 각종 전적에서 정인홍이 기록한 글들을 뽑아 15권7책으로 편집, 간행한 것이다. 서문과 발문은 없으나, 문집의 말미에 ‘辛亥仲夏刊印’이란 간기가 있음을 볼 때 1911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인홍은 1908년(순종 2)에 신원되어 관직이 회복되었는데, 후손들은 정인홍이 오랫동안 역적으로 낙인찍혔던 점을 변호하고 그의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문집의 간행에 착수하여 이해 여름에 간행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다른 문집에 비해 시문의 비중이 적고 성리학의 이론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이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계(啓)·소(疏)·차(劄)·봉사(封事) 등 저자의 사회적·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⁴⁶⁾

문집을 간행할 때 권책을 달리하여 2종을 간행한 경우도 있었으니, 최병호(崔炳祐)의 『오과문집(梧坡文集)』이 1927년에 7권3책과 7권3책+별집=7권4책의 두 종류가 인출된 것이 그 보기이다. 후자의 제4책은 별집으로 지리서인 『동국지승집략(東國地乘集略)』이 추가되어 있다.

합천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합집인 『파산세고(坡山世稿)』는 순조대의 문인인 파평윤씨 윤우(尹楸)와 그의 아들 5형제, 그리고 손자 넷 모두 11인의 시문을 모은 책으로 12권6책이다. 그 내용을 보면, 권1-2 「묵와집(默窩集, 윤우)」, 권3 「소남집(小南集, 윤병구)」, 권4 「단애집(丹厓集, 윤병래)」, 권5 「미남집(美南集, 윤병은)」, 권6-8 「산석집(山石集, 윤병주)」, 권9-10 「화하집(華下集, 윤병효)」, 권11 「터현집(攄軒集, 윤진규)」·「두봉집(斗峯集, 윤익규)」·「정수집(靜修集, 윤덕규)」,

46) 이희중, “내암집 내용 개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2.3. 접속,
<http://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gotoUrl=http://kyujanggak.snu.ac.kr/home/MOK/CONVIEW.jsp?type=HEJ^ptype=list^subtype=mj^lclass=01^mclass=sclass=^ntype=hj^cn=GR31362_00>

권12 『미당집(美堂集, 윤영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산면 화양리의 과평윤씨 입향조는 계유정난 때 화를 입은 김종서의 사촌 처남인 윤장(尹將)으로 관직을 버리고 화양마을로 피해 왔다. 이곳의 과평윤씨 문중은 목와 윤우(1784-1836) 대에 이르러 중흥기를 맞았다. 그는 1816년(순조 16) 33세 때 아버지 윤경목이 돌아간 이후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문해구(文海龜, 1776-1849)와 더불어 이연서원에서 강학하여 합천의 문풍 진작에 힘썼다. 순조가 별세하자 슬픈 마음을 읊은 ‘문대행대왕승하통곡유감(聞大行大王昇遐痛哭有感)’이라는 윤우의 시가 『파산세고』에 전한다. 목와고가는 선조 때 선전관을 역임한 윤사성이 지었으며, 원래는 대지 600평에 100여 칸에 이르렀다고 한다.⁴⁷⁾

문집의 합집인 『류하연방집(柳下聯芳集)』은 성주의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의 주리론을 계승한 은진송씨 송호문(宋鎬文, 1862-1907)과 송호연(宋鎬彦, 1865-1907) 형제의 시문집이다.⁴⁸⁾

합천에서 간행된 실기의 합집으로는 『육효록(六孝錄)』과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를 들 수 있다. 『육효록』은 합천에 세거하는 의성김씨 삼대에 걸친 여섯 효자, 김두남과 두 아들 김극민, 김극형, 김극민의 아들 김팔화, 김극형의 두 아들 김팔휴, 김팔거의 유문과 행적을 기록한 실기의 합집이다. 6권2책으로 1911년에 김인식이 간행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卷1 김두남(金斗南, 1567-1615)의 『덕탄선생실기(德灘先生實記)』, 권2 김극민(金克敏, 1591-1670)의 『반곡공실기(磻谷公實記)』, 권3 김극형(金克亨, 1609-1650)의 『무위당공실기(無爲堂公實記)』, 권4 김팔화(金八和, 1633-1698)의 『노촌공실기(蘆村公實記)』, 권5 김팔휴(金八休, 1625-1662)의 『수구재공실기(守口齋公實記)』, 권6 김팔거(金八擧, 1630-1671)의 『개암공실기(開巖公實記)』로 편차되었다. 서문은 기호남인의 학통을 잇는 성재 허전(許傳)과 퇴계학통을 잇는 정재 류치명(柳致明) 문인인 척암 김도화(金道和)가 쓴 것으로 보아 이들의 학문적, 정치적 지향은 퇴계학과의 남인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는 합천 초계에 세거하는 참판을 지낸 이윤겸((1451-1506)과 그의 세 아들 등 10대에 걸친 11인의 유문과 행적을 기록한 실기의 합집이다. 그 내용은 권1 『참판공실기(參判公實記)』(李允儉), 권2 『월휘당실기(月暉堂實記)』(李希曾, 1486-1509), 권3 『교리공실기(校理公實記)』(李希閔, 1498-1521), 권4 『황강선생실기(黃江先生實記)』(李希顏, 1504-1559), 권5 『개석정실기(介石亭實記)』(李天受), 권6-7 『삼우당실기(三友堂實記)』(李胤緒, 1574-1624), 권8 『농암실기(壘庵實記)』(李亨源), 권9 『취백헌실기(翠白軒實記)』(李又新), 권10 『중추공실기(中樞公實記)』(李昌祉), 권11 『하고공유고(霞痾公遺稿)』(李鴻瑞), 권12 『둔재공유고(遯齋公遺稿)』(李陽柱)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권4 이희안(李希顏, 1504-1559)의 『황강선생실기(黃江先生實記)』는 별책으로도 장책

47) “[이정응의 노거수와 사람들] 과평인 윤장과 합천 목와고가의 모과나무,” 『每日新聞』, 2012.8.2.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4788&yy=2012>.

48) 『류하연방집』은 1913년 송원구(宋元求)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하겸진(河謙鎭)의 서문과 윤창수(尹昌洙)와 송원구의 발문이 있다. 송호문의 행장은 송호완(宋鎬完), 묘갈명은 곽종석(郭鍾錫)이 찬하였으며, 송호연의 행장은 곽종석, 묘갈명은 장석영(張錫英)이 찬하였다.

하였다. 남명 조식(曹植)·송계 신계성(申季誠)과 더불어 ‘영중삼고(嶺中三高)’라고 불렀던 합천 선비 황강 이희안은 1517년(14세) 사마시에 합격하고, 1525년(22세)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1519년(16세)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부친인 참판공이 대사성 김식(金湜)과의 교분으로 체포되고, 중형 이희민이 조광조의 문인인 관계로 삭탈관직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531년(28세) 고향인 합천 쌍책면 성산리 황둔진 하류의 벼랑에 황강정(黃江亭)을 세워 글을 짓고 강론하였다. 1552년(명종 7)에 경상감사 이몽량(李夢亮)이 천거하여⁴⁹⁾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 고령 현감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하였다. 남명 조식, 퇴계 이황과도 교유하였고, 사후 합천 청계서원에 제향되었다. 『황강선생실기』가 별책으로 장정되어 유통되는 것은 청계서원에 배향된 이희안이 합천이씨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세고(世稿)”라는 서명은 문집뿐 아니라 실기를 모은 경우에도 사용함을 볼 수 있다.

3.2 문집의 저자사항 분석

3.2.1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분석

경남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저자들이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 저자들의 출생연도를 조사하였다.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가 소개되지 않은 경우는 문집 부록의 행장을 통해 출생연도를 찾았다. 문집에 부록이 없어 행장도 없는 경우는 문인록을 통해 알아내기도 하였다.⁵⁰⁾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저자 6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출생연도	인원(종수)		출생년(인원)
미상	1(1)		1(1)
1300-1349	2(2)	-	-
1350-1399		2(2)	1376(1), 1399(1)
1400-1449	3(3)	-	-
1450-1499		3(3)	1451(1), 1494(2)
1500-1549	20(20)	9(8)	1504(1), 1512(1), 1516(1), 1527(1), 1534(1), 1535(1, 2종), 1544(1), 1546(2)
1550-1599		11(12)	1551(2), 1556(1), 1557(1), 1560(1), 1567(1), 1568(2, 3종), 1586(1), 1591(1), 1594(1)

49) 盧相稷, “黃江亭重修記,”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편집위원회 편(2002), 614-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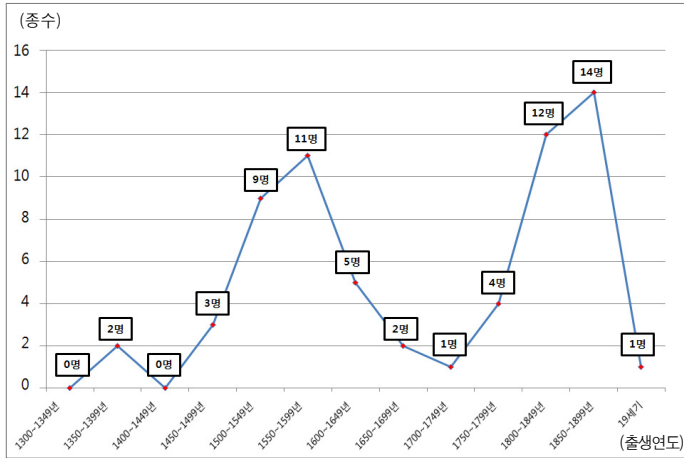
50) 양재선의 경우는 문집에 부록이 없어 행장도 없었는데, 노백헌(老柏軒) 문인록의 “梁在善字景賢甲子生南原人有文集居山清鵝湖”라는 기사를 통해 갑자생임을 알 수 있었다. 양재선은 노백헌 정재규(鄭載圭, 1843-1911)의 문인이므로 갑자생이면 그의 출생년은 1864년이 된다.

출생연도		인원(종수)		출생년(인원)
1600-1649		7(7)	5(5)	1610(1), 1611(1), 1629(1), 1636(1), 1646(1)
1650-1699			2(2)	1661(1), 1672(1)
1700-1749		5(5)	1(1)	1724(1)
1750-1799			4(4)	1756(1), 1761(1), 1762(1), 1765(1)
1800-1849	1800-1809	26 (29)	12 (15)	1806(1), 1809(2)
	1810-1819			-
	1820-1829			1824(1), 1827(1)
	1830-1839			1830(1), 1832(1), 1838(1)
	1840-1849			1843(1, 2종), 1846(2, 4종), 1848(1)
1850-1899	1850-1859	14 (14)	14 (14)	1850(2), 1852(1), 1856(1)
	1860-1869			1861(2), 1862(1), 1865(2), 1866(1), 1867(1)
	1870-1879			1870(1)
	1880-1889			1880(1), 1882(1)
	1890-1899			0
19세기		1(1)		1(1)
계		65인 (70종)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저자 6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해 보면, 14세기 후반인 1376년부터 19세기 후반인 1882년까지 506년의 간극이 있다. 14세기에 출생한 인물은 하연(1376-1453)과 김문기(1399-1456)의 2인이다. 나머지 63인은 1451년(문종 원년) 이후에 출생하였다. 전체 저자 65인의 출생연도 분포를 50년 단위로 보면, 1850년부터 1899년까지 50년 동안 출생한 인물이 14인으로 가장 많고, 1800년부터 1849년까지 각 50년 동안 출생한 인물이 12인으로 그 다음이고, 1550년부터 1599년까지 50년 동안 출생한 인물이 11인, 그 다음이 1500년부터 1549년까지 출생한 인물이 9인, 1600년부터 1649년까지의 50년 동안 출생한 인물이 5인이다. 합천지역의 목활자본 문집 저자는 19세기 출생자가 26인으로 전체의 40%, 16세기 출생자가 20인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한다. 반면에 17세기부터는 7인(10.8%)으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18세기 출생자는 5인(7.7%)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를 통해 합천 지역의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16세기 출생자와 19세기 출생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문집의 저자 가운데 16세기 출생자가 많다는 것은 영남에서 성리학에 기반한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림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조선조의 통치이념인 성리학을 학문의 주류로 삼고 사장을 중시하는 훈구세력보다는 경학을 중시하는 사림파가 꾸준히 성장하여 성종대에 중앙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사화로 사림파가 많은 희생을 입었지만 중종은 왕도정치 실현을 목적으로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파를 중용하였다. 급진개혁에 반대하는 훈구세력에 의해 기묘사화, 그 후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림은 영남지방에서 과거를 통한 정계진출이나 또는 은둔하여 학문을 연마하는 등 사림의 세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16세기 합천 지역에는 경상우



<그림 2>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출생연도 추이

의 인물이 17명으로 약35%에 이르는 것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17-18세기에 합천 지역의 목활자본 저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1623년 인조반정으로 광해군대의 집권세력인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이 몰락함으로 인해 이 지역의 문풍이 위축되었던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본다.

아울러 경종의 죽음을 시해로 보고 영조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728년(영조 4)에 일어난 무신란에서 정희량과 이인좌의 동생 이용좌는 경상도 안음[함양 안의]에서 봉기하였고, 합천에서는 조성좌와 조정좌 형제가 지역 양반들의 도움으로 관아를 장악했던 일⁵¹⁾을 계기로 합천 지역 출신들의 정계 진출이 차단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학문을 크게 위축시킨 결과 지역 인재 배출도 위축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정국을 서인이 주도함에 따라 합천에서는 서인의 정신적 지주인 율곡 이이가 쓴 『격몽요결(擊蒙要訣)』과 『해동연원록(海東淵源錄)』 등을 보관하고자 1725년(영조 3)에 옥계서원을 세웠다. 봉산면의 이 서원은 율곡 이이를 비롯하여 윤병계, 최두남, 위백규, 박준흠, 최유윤 등 여러 인물을 배향하고 있다. 이는 인조 반정으로 북인 몰락 이후 중앙 정계 진출이 차단된 합천에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활동으로 파악된다.

3.2.2 저자의 성관(姓貫) 분석

향촌사회가 집성촌을 이루었던 조선후기에 학문적 역량이 있는 선조가 있음을 증거하는 문집 간행은 문중의 사업이었다. 합천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문중을 파악하고자 저자의 성씨와 관향(貫鄕), 즉 성관(姓貫)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51) 고성훈, “영조의 정통성을 묻다: 무신란과 모반사건(3),” 2018.2.6. 접속, <<https://blog.naver.com/jungyoupkim/220512510534>>.

도 사림의 영수인 남명 조식과 그 제자인 내암 정인홍이 제자양성에 적극적이어서 이 지역에 학문이 많이 진작됨으로 인해 과거 급제자와 학자가 많이 배출되었다. 정인홍을 위시한 조식의 제자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적과 맞서 싸움으로써 의(義)의 실천자로 조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였는데, 조선시대 합천지역 출신 문과급제자 49명 가운데 선조후기부터 광해군대

<표 4>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저자의 성관(姓貫) 분석

발행 종수	성씨의 종류	성관	저자명(관향 혹은 종수)
6종	1	남평문씨	문경충(文敬忠), 문덕수(文德粹), 문동도(文東道), 문정유(文正儒), 문용(文鏞), 문선호(文宣浩)
4종	3	합천이씨	이윤검(李允儉), 이희안(李希顔), 이정두(李正斗), 이직현(李直賢)
		초계정씨	정재규(鄭載圭, 2종), 정면규(鄭冕圭), 정형규(鄭衡圭)
		연안차씨	차천로(車天輅), 차석호(車錫祐, 2종), 차홍섭(車鴻燮)
3종	8	진양강씨	강익문(姜翼文), 강대수(姜大遂), 강대적(姜大適)
		안동권씨	권직희(權直熙), 권숙(權淑), 권재춘(權載春)
		의성김씨	김두남(金斗南), 김태명(金泰鳴), 김휘운(金輝運)
		진주류씨	류종원(柳鍾源), 류원중(柳遠重), 류백계(柳栢季)
		은진송씨	송지식(宋之弼), 송호문(宋鎬文), 송호곤(宋鎬坤)
		벽진이씨	이중무(李重茂, 2종), 이흘(李屹)
		서산정씨	정인홍(鄭仁弘, 2종), 정인준(鄭仁濬)
		경주최씨	최유윤(崔惟允), 최덕환(崔德煥), 최병식(崔秉軾)
2종	7	고령박씨	박만(朴曼), 박용전(朴龍田)
		밀양박씨	박서구(朴瑞龜), 박효영(朴孝英)
		파평윤씨	윤우(尹杻), 윤하식(尹夏植)
		동성이씨	이정(李楨), 이희로(李希魯)
		성산이씨	이영(李羹), 이한철(李漢喆)
		전주최씨	최병호(崔炳祐, 2종)
1종	14	김녕김씨	김문기(金文起)
		광주노씨	노흠(盧欽)
		죽성박씨	박엽(朴燁)
		밀양손씨	손인갑(孫仁甲)
		평산신씨	신호인(申顯仁)
		강진안씨	안방노(安邦老)
		전의이씨	이대기(李大期)
		완산전씨	전규환(全奎煥)
		연일정씨	정세필(鄭世弼)
		진주정씨	정필달(鄭必達)
		창녕조씨	조희규(曹禧奎)
		여양진씨	진극원(陳克元)
		진주하씨	하연(河演)
		청주한씨	한석필(韓碩弼)
계	34		

위 <표 4>에서 보듯이,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저자의 성관을 파악해 본 결과, 목활자본 문집 70종을 간행한 저자 65인의 성관은 모두 33개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6종을 간행한 남평문씨이고, 다음은 4종을 간행한 성씨는 3개로서 합천이씨, 초계정씨, 연안차씨이며, 다음으로 3종을 간행한 성씨는 8개로서 진양강씨, 안동권씨, 의성김씨, 진주류씨, 은진송씨, 벽진이씨, 서산정씨, 경주최씨이다. 2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7개로서 고령박씨, 밀양박씨, 파평윤씨, 동성[사천]이씨, 성산이씨, 전주최씨, 김해허씨이다. 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

행한 성씨는 14개로서 김녕김씨, 광주노씨, 죽성박씨, 밀양손씨, 평산신씨, 강진안씨, 전의이씨, 완산전씨, 연일정씨, 진주정씨, 여양진씨, 창녕조씨, 진주하씨, 청주한씨이다. 이처럼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 간행 저자의 성관이 어느 성씨에 크게 집중되지 않고 고르게 널리 여러 성씨가 문집 간행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합천과 이웃한 산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 91종을 간행한 성씨는 모두 31개로서, 한 성씨가 적게는 1종부터 많게는 23종을 간행하였다. 1종 간행한 성씨는 14개, 2종은 11개이고, 1개의 성씨가 3종(전의이씨)·5종(상산김씨)·7종(여흥민씨)·8종(밀양박씨)·9종(성주이씨)·23종(안동권씨)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하였다. 산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은 안동권씨, 성주이씨, 밀양박씨, 여흥민씨, 상산김씨 등 5개 성씨가 5종부터 23종의 문집을 간행하여 성씨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산청과 다르게 합천은 문집을 여러 성씨에서 비교적 고르게 간행하였는데, 이는 합천출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49명의 성씨 분포와 유사한 면이 있다. 합천지역 출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49인의 성씨를 보면, 창녕조씨 6인, 남평문씨 5인, 파평윤씨 4인을 비롯하여 3명을 배출한 초계정씨·합천이씨·진주강씨·상주주씨, 2인을 배출한 선산김씨, 서산정씨가 있고, 1인을 배출한 성씨는 18개로 안동권씨, 광주노씨, 팔려도씨, 밀양박씨·반남박씨·순천박씨·죽산박씨·군위방씨·화원석씨·은진송씨·탐진안씨·덕수이씨·벽진이씨·진주이씨·나주임씨·경산전씨·전주최씨·김해김씨 등 모두 27개 성씨이다.⁵³⁾ 이를 볼 때 남명 조식의 수제자인 정인홍의 정치적 패퇴 이후 정계진출이 좌절되어 크게 현달한 인물이 배출되지 않았지만 각 문중별로 학문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합천은 땅이 넓고, 들판도 넓으며,⁵⁴⁾ 철(鐵)이 생산되고,⁵⁵⁾ 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합천 사람들이 기질이 굳세어⁵⁶⁾ 다스리기 어렵기⁵⁷⁾ 때문에 어느 한 성씨가 향촌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넓고 비옥한 토지와 철 생산에 기반한 경제력과 강한 기질로

52) 송정숙(2016), 222-223.

53) 합천의 문과급제자의 급제시기와 본관별 인원은 다음 표와 같다.

	고려			조선			계				
	고려	조선	계	고려	조선	계	고려	조선	계		
초계정씨	7	3	10	진주강씨	0	3	3	합계	14	49	63
합천이씨	5	3	8	상주주씨	0	3	3				
창녕조씨	0	6	6	선산김씨	0	2	2				
남평문씨	0	5	5	서산정씨	0	2	2				
파평윤씨	0	4	4	기타*	2	18	19				

* 고려: 초계변씨, 청주한씨 각1명 / 조선: 안동권씨, 광주노씨, 팔려도씨, 밀양박씨, 반남박씨, 순천박씨, 죽산박씨, 군위방씨, 화원석씨, 은진송씨, 탐진안씨, 덕수이씨, 벽진이씨, 진주이씨, 나주임씨, 경산전씨, 전주최씨, 김해김씨 각 1명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2000), 62.

54) 【형승】 사방 산이요 여덟 줄기 물이다. 군의 사면이 모두 산이면서 평평한 들판이 넓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0, 경상도(慶尙道) 초계군.

55) 【토산】 철 황산에서 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慶尙道) 삼가현.

56) 【풍속】 습속이 굳세고 사나움을 숭상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1, 경상도(慶尙道) 삼가현.

57) “합천은 물산이 많고 땅이 넓을 뿐만 아니라 …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로 소문이 났는데…,”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1631) 2월 30일 甲戌.

인해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병이 경상우도로 못 들어오도록 방어할 수 있었다고 파악된다.

남명 조식은 외가곳인 합천 외토리에서 태어나 제자도 양성하였지만, 만년에 산청 시천면 덕산의 산천재에서 강학하였고, 사후 강학하던 자리에 덕천서원이 건립됨에 따라 이곳이 남명학파의 본산이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남명선생문집』도 산청에서 판각되었다. 합천의 창녕조씨 문중에서 간행한 목활자본 문집은 정재규(鄭載圭)·곽중석(郭鍾錫)과 교류했던 조희규(曹禧奎, 1830-1877)의 『창와선생문집(菴窩先生文集)』 1종뿐인 것으로 보아 합천 유림에서 창녕조씨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인홍을 배출한 서산정씨 가문의 경우, 정인홍이 인조반정 이후 1908년까지 역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바람에 향촌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암선생문집』도 목판으로 판각되지 못하고 1908년 명예회복이 된 이후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합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6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남평문씨이다. 남평문씨는 신라 자비왕 때 사람인 문다성(文多省)을 시조로 한다. 이후 고려에서 문무겸직의 시조를 만든 충직한 재상으로 이름이 높은 문극겸의 6세손 문근이 공민왕 말기에 이성계의 세도를 피해 합천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합천 대병면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합천 지역 남평문씨 문중에서 간행한 목활자본 문집은 문경충(文敬忠, 1494-1555)의 『사미선생유집(四美先生遺集)』, 문덕수(文德粹, 1516-1595)의 『고사선생실기(孤查先生實記)』, 문동도(文東道, 1646-1699)의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문정유(文正儒, 1761-1839)의 『동천문집(東泉文集)』, 문용(文鏞, 1861-1926)의 『겸산문집(謙山文集)』, 문선호(文宣浩, 1865-1903)의 『외암문집(畏菴文集)』의 6종이다. 대병면 대지리가 고향인 사미 문경충은 병조참판을 지냈으나 기묘사화의 참상을 목격하고 난 뒤 벼슬을 버리고 대병면 대지리 월여산 밑에 사미정(四美亭)을 건립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⁵⁸⁾ 사미정에서 문경충은 조식, 최영경, 곽중석, 김진호, 이희안, 이원 등 인근의 학자들과 학문을 논하고 우정을 나누었다.⁵⁹⁾ 문덕수는 효행이 뛰어나 생전에 정려를 받은 합천 선비로, 임란 때에는 나라를 구하고자 의병을 일으킨 인물이다. 문동도는 합천군 용주면의 용연서원에 배향되었다.

4종의 문집을 간행한 성씨는 합천이씨, 초계정씨, 연안차씨의 3개 성씨이다.

합천이씨는 이윤검(1451-1506)과 그의 세 아들 등 10대에 걸친 11인의 유문과 행적을 기록한 실기의 합집인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 이희안(李希顔, 1504-1559)의 『황강선생실기(黃江先生實記)』는 1900년, 이정두(李正斗, 1824-1865)의 『난초유고(蘭樵遺稿)』, 시암(是庵) 이직현(李直賢, 1850-1928)의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이 이직현이 강학하던 일증정에서 1933년에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초계군 초책면에 속하였던 쌍책면 성산리 내촌마을은 황강변에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관수정, 황강정이 있다.⁶⁰⁾ 이 마을에 세거하는 참판을 지낸 합천이씨 이윤검과 세 아들

58)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1045.

59) “(대병면)대지리의 사미정의 강산풍월(江山風月)의 아름다움,” 합천 땅 그리고 쪽빛 하늘, 2018.1.7. 접속, <<http://cafe.naver.com/hapcheonlife/535>>.

60)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568.

등 11인의 실기 합집이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 12권4책이고, 이윤검의 아들로 청계서원에 재향된 이희안(李希顔, 1504-1559)의 『황강선생실기(黃江先生實記)』는 그 중 권4를 별도로 장책한 것이다. 황강정은 이희안이 강학하던 곳이다. 『난초유고』의 저자인 울곡면 임북리의 난초(蘭樵) 이정두(李正斗, 1824-1865)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에 남보다 뛰어난이 있었다⁶¹⁾고 한다. 초계면 상대리의 무릉마을은 합천이씨 이원개(李元凱)가 400년 전에 합주(陝州)에서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이 마을의 시암(是庵) 이직현(李直賢)은 노사 기정진의 문인으로 영남에서 노사학맥을 이은 유학자였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도 헌신하여 1919년 4월 21일 초계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 노릇을 하였고, 상해임시정부와 연결된 대동단에 가입하여 동년 11월 28일 의친왕을 중심으로 하는 독립선언서에도 서명했다. 1918년 일본의 만동묘 제향 금령에 저항하여 영남 지역을 대표해 만동묘에 갔다. 조선총독 하세가와에게 만동묘 제향 금지의 부당함을 성토했다는 편지를 보냈고 조선 유럽에게 목숨을 걸고 만동묘 제향을 강행하니 성원해 달라는 통문을 보냈다.⁶²⁾

쌍백면 옥리 목동의 초계정씨는 노백헌 정재규(鄭載圭, 1843-1911)의 『노백헌선생문집(老栢軒先生文集)』 49권25책과 『노백헌선생문집부록(老栢軒先生文集附錄)』 5권2책이 1935년에 노백서사에서, 정재규의 사촌 아우 농산(農山) 정면규(鄭冕圭, 1850-1916)의 『농산문집(農山文集)』은 1920년, 정재규의 족제(族弟)인 창수(蒼樹) 정형규(鄭衡圭, 1880-1957)의 『창수집(蒼樹集)』은 1958년에 간행되었다.

쌍백면 옥리 목동의 초계정씨는 고려시대 광유후(廣儒侯) 정배걸(鄭倍傑)의 후손으로 정재규는 기정진에게 수학하였다. 사촌동생인 정면규도 정재규를 통해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가르침을 받았다. 정재규와 정면규는 산청 강루리의 신안정사에서 당시 노론계열의 영호남 거유인 월고(月皐) 조성가(趙性家), 일신 이의립, 계남 최숙민, 송사 기우만, 송산(松山) 권재규(權載奎) 등과 함께 1901년 목판본 『노사선생문집(蘆沙先生文集)』을 중간하였다.⁶³⁾ 정재규 사후 정면규는 정재규가 강론하던 노백서사에서 거처하며 후학을 가르쳤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없어지려 하자 정재규와 함께 최익현을 찾아가 의병을 일으킬 것을 도모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⁶⁴⁾ 정형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주권이 일제에 침탈당하자 자결하여 순국의 절의를 지킨 우암 송시열의 후손 심석재(心石齋) 송병순(宋秉琇)의 문인이다. 송병순 순절 후 부안 앞바다의 고군산도에 은거하는 간재(艮齋) 전우(田愚)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다.⁶⁵⁾ 쌍백면의 초계정씨 정재규와 정면규, 정형규는 조선말기 영남의 대표적인 노론계의 학자라고 하겠다.

61) 조양원, “이정두(李正斗),”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c_A1824_1_0022006>

62) 노관범, “1918년 영남 유학자 이직현의 만동묘 제향 투쟁 해설,” 『고전의 향기』: 백 권 여섯 번째 이야기, 2011.3.7. 2018.3.10. 접속, <<http://blog.daum.net/ronaldo200/17057407>>.

63) 송정숙(2016), 234.

64) 권재奎, “농산(農山) 정면규(鄭冕圭)의 묘갈명 병서,” 최석기·김현진·구경아·강현진·강지옥·구진성, 『19세기 경상수도 학자들 中』 (서울: 보고사, 2014), 147-153.

65) “264. 창수 정형규,” 『경남일보』, 2008.4.24.

연안차씨는 차천로(車天輅, 1556-1615)의 『오산집(五山集)』을 1901년, 차석호(車錫祐, 1846-1911)의 『해사집(海史集)』 10권5책본과 4권2책본의 2종을 1927년, 차홍섭(車鴻燮)의 『운계집(雲溪集)』을 1931년에 간행하였다. 조선시대 초계군 덕진면에 속하였던 청덕면 운봉리는 400년 전부터 연안차씨가 집단 세거한 곳이다. 이곳에서 출생하여 고종조에 성균관 국자박사를 역임한 차석호를 추모하여 건립한 해사정에서 차석호의 문집인 『해사집』이 1927년에 차홍섭 등이 주도하여 간행되었다. 차석호는 1874년(고종 11)에 성재 허전에게 예학을 배웠으며, 이때 스승으로부터 ‘해사’라는 호를 받았다.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壬午軍亂)이 일어나자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자신의 호를 딴 운곡정사(雲谷精舍)에 은거하여 경서(經書) 연구에 몰두하였다.⁶⁶⁾ 차석호는 방조(傍祖)인 차천로(車天輅, 1556-1615)의 『오산집(五山集)』을 1901년에 간행하였다. 차천로는 서경덕의 문인으로 1577년(선조 10)에 문과급제 하였다. 시에 능해 한호의 글씨, 최립(崔嵬)의 문장과 함께 ‘송도 삼절(松都三絶)’, 아버지 차식, 아우 차운로(雲輅)와 함께 ‘3소(三蘇)’이라 불렸으며,⁶⁷⁾ 송도 출신이다. 『해사집』 간행한 주관했던 차홍섭의 『운계집』은 1931년에 간행되었다.

3종의 문집이 간행된 진양강씨의 3인은 아버지 강익문(姜翼文, 1568-1649)과 두 아들 강대수(姜大遂, 1591-1658)·강대적(姜大適, 1594-1678)이다. 강익문의 선조들은 진주에서 살았는데, 4대조 강희필이 합천 임복으로 옮겨왔다. 묘산면 관기리 출신으로 임란때 의병을 일으켜 정인홍, 김면 등과 왜적으로 물리친 강익문의 『당암선생문집(巖庵先生文集)』이 1908년에 8세손 강기팔(姜起八)과 10세손 강봉로(姜鳳魯)에 의해 한석재(寒石齋)에서 인출되었다. 강대수(姜大遂)의 『한사선생연보(寒沙先生年譜)』는 1909년에 9대손에 의해 노양재(魯陽齋)에서 인출되었고, 강대적(姜大適)의 『구주선생문집(鷗洲先生文集)』은 1916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강대수와 강대적의 아우인 경호(鏡湖) 강대연(姜大延, 1606-1655)은 병자호란 이후 산청 정곡마을에 은거하였다. 강대연을 비롯한 후손들의 문적이 실려 있는 『호상지미록(湖上趾美錄)』⁶⁸⁾은 1947년에 산청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는데, 후손 봉암(鳳菴) 강지호와 그의 아들 계려(稽黎) 강기팔(姜起八)이 편찬·간행하였다.⁶⁹⁾

문집의 저자 65인 가운데 합천 출신이 아닌 사람은 진주하씨의 하연(1376-1453), 김녕김씨의 김문기(1399-1456), 연안차씨의 차천로(1556-1615) 등이다. 하지만 후손이 합천에 입향하고 난 뒤에 뛰어난 훌륭한 조상이 있음을 선양하기 위해 문집을 간행한 것이다. 문중에 문집이 있다는 것은 학문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당에서 문중의 위상 강화를 위해 현조의 문집을 간행한 사례라 하겠다.

문집의 저자 66인 가운데 임란때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은 합천군에서는 서산정씨 내암 정인홍

66) 고윤수, “차석호(車錫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2018.3.16. 접속,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Id=PPL_6Joc_A1846_1_0022539>.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2), “차천로(車天輅)”.

68) 봉암 강지호(1834-1903)는 경호 강대연과 그의 아들 죽봉(竹峯) 강휘정(姜徽鼎), 손자 역락재(亦樂齋) 강명기(姜命基) 등 3대 시문을 모아 보관해 왔는데, 아들인 계려 강기팔이 이를 정리 편집해 『호상지미록』이란 이름을 붙이고, 다시 강기팔 사후 그의 동생들과 그의 아들에 의해 출간되는데, 이때 강지호와 강기팔의 글들도 함께 편차되었다.

69) “316. 봉암 강지호, 계려 강기팔,” 『경남일보』, 2009.10.22. <<http://www.gnnews.co.kr/news/oldArticleView.html?idxno=229735>>

(1536-1623)과 정인준(1561-1625), 밀양손씨 손인갑(1544-1592), 진양강씨 강익문(1568-1648), 의성김씨 김두남(1567-1615), 성산이씨 이영(1546-1616)의 6인, 초계군에서는 전의이씨 이대기, 합천이씨 이운서(1574-1624),⁷⁰⁾ 광주노씨 노흠(1527-1602)의 3인, 삼가군에서는 죽산박씨 박엽(1560-1616), 남평문씨 문덕수(1516-1595), 밀양박씨 박서구(1546-1623)의 3인, 합 12인으로 전체 66인의 18%에 달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의병활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경상우도 지역의 의병활동은 다른 지역보다 강력하고 폭 넓게 진행되었다. 의병의 주도층은 사림 가운데 명망 있는 자가 의병을 일으켰으며, 의(義)를 중시하였던 남명학파의 사상 경향이 상무정신으로 표출되어 정인홍을 비롯한 남명학파가 초기 의병을 주도하였다.⁷¹⁾

3.3 문집의 간행사항 분석

3.3.1 간행년 분석

문집의 간행연도는 문집 권말의 간행기록인 간기와 1909년 출판법 공포 이후 간행된 책 가운데 판권지가 있는 경우는 이를 통해 간행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 간행기록이 없더라도 서문이나 발문이 있는 경우는 서문이나 발문 가운데 가장 최후에 작성된 서문이나 발문의 작성연도를 통해 간행연도를 추정하였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는 경우는 간행연도를 추정하기 어려워 미상으로 남겨두었다.

경남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로 간행된 문집 70종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

간행연도	종수 (%)	간행년(종수)
1820-1829	2 (2.9%)	1826(1종), 1829(1종)
1830-1839	2 (2.9%)	1834(1종), 1836(1종)
1840-1849	1 (1.4%)	1849(1종)
1850-1859	1 (1.4%)	1858(1종)
1860-1869	0	
1870-1879	1 (1.4%)	1875(1종)
1880-1889	0	
1890-1899	2 (2.9%)	1890(1종), 1892(1종)
1900-1909	9 (12.9%)	1900(2종), 1901(1종), 1902(1종), 1907(1종), 1908(2종), 1909(2종)
1910-1919	13 (18.6%)	1910(1종), 1911(4종), 1913(3종), 1914(1종), 1915(1종), 1916(1종), 1917(1종), 1918(1종)
1920-1929	13 (18.6%)	1920(2종), 1921(1종), 1922(2종), 1924(1종), 1927(5종), 1928(2종)
1930-1939	16 (22.9%)	1931(3종), 1932(2종), 1933(4종), 1934(2종), 1936(4종), 1937(1종)
1940-1949	5 (7.1%)	1941(1종), 1947(1종), 1949(3종)
1950-1959	4 (5.7%)	1956(1종), 1958(2종), 1959(1종)
미상	1 (1.4%)	미상(1종)
계	70(100.0%)	

70) 이운서(李胤緒, 1574-1624)는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 12권4책 가운데 권6-7 『삼우당실기(三友堂實記)』의 저자이다.

71)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편, 『陝川郡史』 제1권 (합천: 합천군사편찬위원회, 2013), 290-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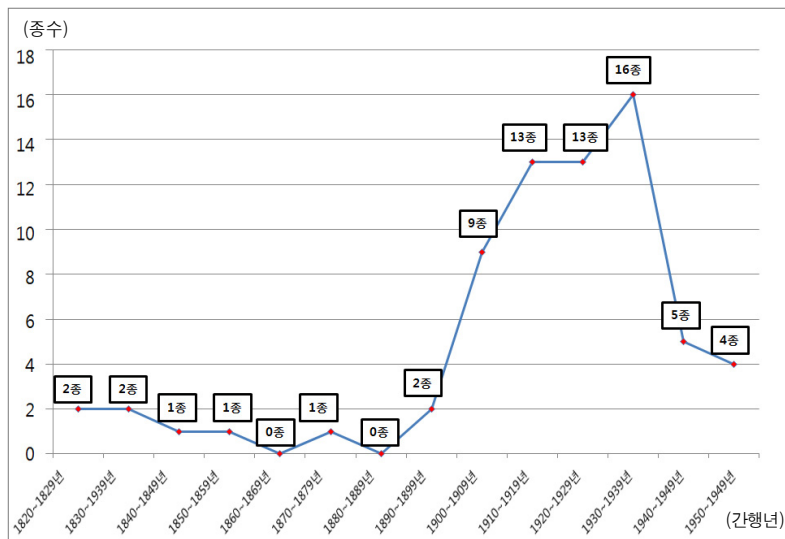
위 <표 5>에서 보듯이, 경남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70종은 1826년부터 1959년까지 133년 동안 간행되었다. 가장 많이 간행된 시기는 16종(22.9%)이 간행된 1930년대이고, 다음은 13종(18.6%)이 간행된 1910년대와 1920년대, 9종(12.5%)이 간행된 1900년대, 5종(8.8%)이 간행된 1940년대, 4종이 간행된 1950년대의 순이다. 182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의 90년 동안에는 모두 9종이 간행되어 평균 10년에 1종꼴로 간행되었고, 1860년대와 1880년대에는 1종도 간행되지 않았다.

이를 그래프로 보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40년 동안에 전체 70종의 73%에 달하는 51종이 간행된 것을 볼 때, 합천지역에서의 목활자본 문집은 조선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 지식인 집단이 자기 문중의 학문을 선양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간행되었다고 하겠다.

1900년대는 1876년 개항 이후 중일, 러일의 경합 이후 일본이 조선에서 지배적 우위를 점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서구식 신문물이 들어오던 시기이며,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 군사, 행정, 사법, 치안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병합을 강요하다가 결국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 식민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일제는 1909년 2월 23일 출판법을 제정하여 모든 한국인의 잡지와 서적 출판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그 제2조에는 원고를 해당 관서에 제출하여 내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⁷²⁾ 이러한 일제의 출판검열로 출판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문집 간행은 검열 통과가 비교적 용이하였고, 목판 판각에 비해 저렴한 목활자 인쇄술의 보급으로 문집 간행이 활발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문집 간행은 훌륭한 선조의 학문과 사상과 삶을 후세에 전하여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저자의 저술과 자손과 문인의 문집 간행에 대한 관심, 문집을 간행할 만한 경제력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졌을 때 문집 간행이 가능하다. 1900년대에는 목판 판각보다 출판 비용이 훨씬 저렴한 목활자 인쇄가 활발해짐으로 인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문집 간행을 가능하게 된 경제적 요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년 추이

72) 박몽구, “일제 강점기 한민족 출판 연구,” 『韓國出版學研究』 제36권 제2호(2010. 12), 94.

3.3.2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분석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저자 사후 몇 년 만에 간행되었는지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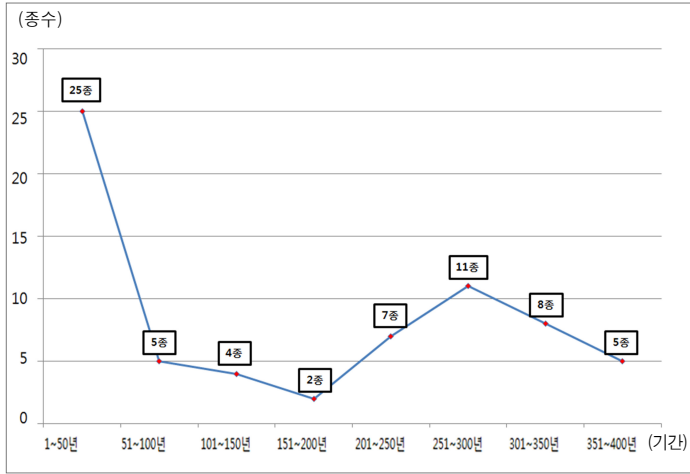
저자 사후 소요기간		종수 / %		기간(종수)	
사후1-50년	사후 1-10년	30 (42.3%)	25 (35.2%)	16(22.9%)	1년(2종), 2년(2종), 3년(1종), 4년(1종), 5년(1종), 5년 이내(1종), 6년(2종), 8년(1종), 9년(3종), 10년(2종)
	사후 11-20년			3(4.2%)	15년(1종), 16년(2종)
	사후 21-30년			3(4.3%)	25년(3종)
	사후 31-40년			1(1.4%)	31년(1종)
	사후 41-50년			2(2.9%)	44년(2종)
사후 51-100년		5	7.1%	64년(1종), 70년(1종), 72년(1종), 83년(1종), 92년(1종)	
사후 101-150년		6 (8.6%)	4	5.7%	108년(1종), 113년(1종), 132년(1종), 137년(1종)
사후 151-200년			2	2.9%	190년(1종), 195년(1종)
사후 201-250년		18 (25.7%)	7	10%	202년(1종), 207년(1종), 209년(1종), 219년(1종), 238년(2종), 246년(1종)
사후 251-300년			11	15.7%	251년(1종), 258년(1종), 259년(1종), 267년(1종), 276년(2종), 282년(1종), 286년(1종), 287년(1종), 288년(1종), 296년(1종), 298년(1종)
사후 301-350년		13 (18.6%)	8	11.4%	303년(1종), 306년(1종), 307년(1종), 319년(1종), 326년(1종), 336년(1종), 340년(1종), 341년(1종)
사후 351-400년			5	7.1%	354년(1종), 361년(1종), 373년(1종), 393년(1종), 394년(1종)
미상		3		4.3%	미상(3종)
계		70		100.0%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70종의 목활자본 문집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25종이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다음이 저자 사후 251~300년 사이에 약 16%에 해당하는 11종이 간행되었고, 그 다음이 저자 사후 301~350년 사이에 11%에 해당하는 8종이 간행되었고, 그 다음이 저자 사후 201~250년 사이에 10%에 해당하는 7종이 간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저자 사후 51~100년 사이에는 7%에 해당하는 5종이, 저자 사후 101~150년 사이에 각 약 6%에 해당하는 4종이 간행되었다.

100년 단위로 보면, 저자 사후 100년 이내에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30종이 간행되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저자 사후 201~300년 사이에 약 26%에 해당하는 18종이 간행되었으며, 다음이 저자 사후 301~400년 사이에 약 19%에 해당하는 13종, 저자 사후 101~200년 이내에는 약 9%에 해당하는 6종이 간행되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합천 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가장 많은 25종(35%)이 간행되었고, 사후 10년 이내에도 16종(22%)이나 간행된 사실로 미루어 부형이 별세하면 자손은 시문이 유실되기 전에 수습하여 문집 간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천에서 목활자본 문집이 1900년대 전반기에



<그림 4> 저자 사후 문집간행 소요기간 추이

대부분 간행된 것으로 볼 때,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된 문집이 많은 것은 19세기에 영남 서부 지역에 새롭게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학문을 통해 가문을 일으키려는 인물이 많았으며, 강학활동에 힘써 영남 서부 지역에 많은 인재가 배출된⁷³⁾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저자 사후 251년부터 300년 이내 목활자본 문집 11종이 간행되어 두 번째로 많으며, 저자 사후

201년부터 350년 이내에 간행된 문집이 26종으로 저자 사후 51년부터 200년 이내에 간행된 문집 11종보다 2.4배나 많다. 이는 합천지역에서 선조와 광해군대에 조식과 정인홍 등 걸출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반면, 1623년의 인조반정과 8년 뒤인 1631년의 이른바 ‘광해군 복위사건’, 1728년의 무신란 등으로 합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유생들의 사풍은 크게 위축되고, 집권세력인 서인으로부터 심한 차별과 배척을 받은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 기간을 문집 유형별로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 기간: 문집 유형별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		종수 / %		문집	유집	실기	
사후 1-50년	사후 1-10년	25	35.7%	16	22.9%	15 (26.4%)	1 (12.5%)
	사후 11-20년			3	4.3%	3 (5.7%)	
	사후 21-30년			3	4.3%	3 (9.4%)	
	사후 31-40년			1	1.4%	1 (1.9%)	
	사후 41-50년			2	2.9%	2 (3.8%)	
소계				24(45.3%)			
사후 51-100년		5	7.1%	4 (7.5%)	1 (12.5%)		
사후 101-150년		4	5.7%	2 (3.8%)	2 (25%)		
사후 151-200년		2	2.9%	2 (3.8%)			
사후 201-250년		7	10%	7 (13.2%)			
사후 251-300년		11	15.7%	7 (13.2%)	2 (25%)	2 (22.2%)	
사후 301-350년		8	11.4%	2 (3.8%)	2 (25%)	4 (44.4%)	
사후 351-400년		5	7.1%	2 (3.8%)		3 (33.3%)	
미상		3	4.3%	3 (5.7%)			
계		70	100.0%	53 (100.0%)	8 (100.0%)	9 (100.0%)	

73)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유형과 저자 사후 간행 소요기간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집의 유형과 저자 사후 문집 간행 소요기간을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문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53종 가운데 45%인 24종이, 유집은 8종 가운데 12.5%인 1종이 간행되었고, 실기는 9종 가운데 1종도 간행되지 않았다. 실기는 저자 사후 150년 이후에 15종 가운데 87%인 13종이 간행되었다. 문집과 유집은 사후 10년 이내가 1종뿐이고, 사후 350년까지 지속되는데 비해, 실기는 모두 사후 250년 이후부터 400년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희안(1504-1559)의 『황강선생실기』의 경우, 이희안의 저작은 비문 2편뿐이다. 문인 전치원(全致遠, 1527-1596) 등이 이희안 사후에 스승의 글을 수집하여 자기 집안에 보관해 오다가, 전치원의 주손인 전양(全漾) 때에 이르러 원고가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록이 극히 소략하다. 이후 후손들이 『동국유선록(東國儒先錄)』·『갱장록(羹牆錄)』·『국조보감(國朝寶鑑)』 및 여러 문집에서 이희안과 관련한 글을 모아, 1899년 겨울에 간행을 시작하여 1900년에 완성하였으니,⁷⁴⁾ 저자 사후 341년만이다. 이처럼 저자의 생존 시기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고 난 뒤 문집을 편찬하려고 하지만 남아 있는 저자의 시문이 적은 경우, 문집보다는 실기로 편찬·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3.3 발행소 분석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처(소)가 문집의 저자, 혹은 문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간기나 판권지의 발행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간기나 인기에는 누정이나 재실의 이름만 보이고, 간기가 없더라도 가끔 발문에 나타난 간행장소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판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소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판권기에는 발행소(처)의 주소만 나타나므로 설립 주체와 건물의 용도 등 발행소의 성격은 『합천지명사』, 『합천문화유적지도』, 『합천누정록』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70종 가운데 인기나 판권지가 있는 31종의 문집에 나타난 발행소를 분석하면, 재실(齋室) 8종, 누정(樓亭) 8종, 개인집 6종, 서사(書舍) 4종, 당(堂) 2종, 서당(書堂) 2종, 서원(書院) 1종의 순이다. 재실(齋室)은 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은 집으로,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망제(望祭)를 지내는 곳이다. 합천에 서는 선현의 제향공간인 재실에서 8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74) “황강실기 해제,” 남명학교문헌시스템, 2018.1.12. 접속,
<http://nmh.gsnu.ac.kr/jsp/search/search_haeje.jsp?id=GBY6_ZBHL_HKS181_AH001&mid=01&search_word=&flag=all&tableName=MCG_MUN&searchType=simple&gubun_image=&gubun_check=&list_limit=&pg=&asc=&orderby=&author=>>.

<표 8>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소

구분	간행 종수	간 행 소			
		발행소명	주소	용도	간행 문집명(저자)
제실 (7)	8	1 錦里齋(亭)	대병면 장단리 935	금리 권직희가 강학하던 곳, 안동권씨	금리문집(錦里文集, 권직희)
		1 魯陽齋	울곡면 노양리 327	안동권씨의 재실	한사선생연보(寒沙先生年譜, 강대수)
		2 萬竹齋	봉산면 회양리 475	동성[사천]이씨	농암회갑시(農菴回甲詩, 이희로) 수서시(壽瑞詩, 이정)
		1 三德齋	가회면 덕촌리	김해허씨 재실 혁림서당: 허희가 후학을 가르친 곳	혁림재집(赫臨齋集, 허희)
		1 永慕齋	울곡면 본천리 400		동천문집(東泉文集, 문정유)
		1 永保齋			남계선생문집(梅溪先生文集, 이증무)
		1 寒石齋			당암선생문집(巖庵先生文集, 강익문)
개인집 (6)	6	1 韓碩煥 家	가야면 사촌리 501		조암선생문집(鈞巖先生文集, 한석필)
		1 李道燮 家	울곡면 임북리 346		난초유고(蘭樵遺稿, 이정두)
		1 李相文 家	울곡면 본천리 175		오과문집(梧坡文集, 최병호)
		1 尹柄翰 方	가회면 중촌리		매하유고(梅下遺稿, 윤하식)
		1 申彥警 家	묘산면 팔심리 188		용산범국회록(龍山泛菊會錄)
		1 車學淳 家	청덕면 운봉리 662		운계집(雲溪集, 차홍섭)
		당 (2)	2	1 景義堂	용주면 황계리 497
1 百源堂	봉산면 노파리 47				정산선생문집(靖山先生文集, 송호곤)
누정 (7)	8	1 臥龍亭	대양면 덕정리 976	林軒 鄭世彌를 위한 재실, 연일정씨	임헌실기(林軒實記, 정세필)
		2 碧寒亭	용주면 손목리 481	무민당 박인이 강학하던 곳, 고령박씨 문중 재실	눌수유고(訥叟遺稿, 박용진) 수졸재유고(守拙齋遺稿, 박만)
		1 泗源亭	쌍책면 사양리 242		소심정문집(小心亭文集, 전규환)
		1 海史亭	청덕면 운봉리 송정마을	해사 차석호 추모한 재실, 연안차씨	해사집(海史集, 4권2책/ 10권5책, 차석호)
		1 日中亭	초계면 상대리 657	시암 이직현이 강학하던 곳, 합천이씨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이직현)
		1 孤查亭	대병면 성리 126	고사 문덕수 추모 재실	겸산문집(謙山文集, 문용)
		1 源泉亭	울곡면 본천리	성주이씨 이경오가 공부하던 곳.	죽파집(竹坡集, 이한철)
서당 (2)	2	1 淸溪書堂	울곡면 내천리 78	이희안, 전치원, 이대기 향사	설학선생문집(雪壑先生文集, 이대기)
		1 輪山書堂			윤산문집(輪山文集, 박효영)
서사 (2)	4	3 老柏書舍	쌍백면 욱리 930	노백헌 정재규가 은거하던 곳, 재실	오과문집(梧坡文集, 4책, 최병호) 노백헌선생문집(老栢軒先生文集, 정재규) 노백헌선생문집부록(老栢軒先生文集附錄, 정재규)
		1 安峯丙舍			유하연방집(柳下聯芳集)
서원(1)	1	1 玉溪書院	봉산면 술곡리	울곡 이이 향사	옥간집(玉澗集, 최병식)
계	31종				

대병면 장단리의 금리재(錦里齋)는 금리 권직희가 강학하던 곳에 세운 재실로 이곳에서 권직희의 『금리문집(錦里文集)』을 인출하였다. 울곡면 노양리의 노양재(魯陽齋)에서 강대수의 『한사선생연보(寒沙先生年譜)』를, 봉산면 양지리는 1600년대 입촌한 사천이씨 김성촌으로 이곳의 만죽재에서 동성[사천]이씨인 이희로의 『농암회갑시(農菴回甲詩)』와 이정의 『수서시(壽瑞詩)』를 인출하였다. 가회면 덕촌리의 삼덕재(三德齋)는 김해허씨의 재실로 허희가 혁림서당을 세워 후학을 가르치던

곳이다. 여기에서 허희의 『赫臨齋集(赫臨齋集)』을 인출하였다.

누정(樓亭)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룻바닥을 지면에서 한층 높게 하고 벽이 없이 지은 집으로 누각(樓閣)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⁷⁵⁾ 누정은 휴식과 사교 공간 외에 선현 추모와 학문 연마, 자손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었다. 합천에서는 제향공간이며 학습, 교육공간이던 누정에서 8종의 목활자본 문집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양면 덕정리의 와룡정(臥龍亭)은 연일정씨 임헌(林軒) 정세필(鄭世弼)을 추모하기 위한 재실인데, 여기서 정세필의 『임헌실기(林軒實記)』를 인출하였다. 용주면 손목리의 칠봉산 아래의 벽한정(碧寒亭)은 고령박씨 문중 재실로서 무민당 박인(1583-1640)이 강론하던 곳⁷⁶⁾인데, 여기서 박용진의 『눌수유고(訥叟遺稿)』와 박만의 『수졸재유고(守拙齋遺稿)』를 인출하였다. 쌍책면 사양리는 완산전씨가 300년 전에 시거한 마을로서, 이 마을의 사원정(泗源亭)에서 완산전씨 전규환(1832-1893)의 『소심정문집(小心亭文集)』을 인출하였다. 청덕면 운봉리 송정마을은 연안차씨 집성촌으로 해사정(海史亭)은 이곳에서 태어난 해사 차석호를 위한 재실인데,⁷⁷⁾ 여기에서 차석호의 『해사집(海史集)』 4권2책과 10권5책 2종을 인출하였다. 초계면 상대리의 일중정(日中亭)은 강양군 이개(李開)의 후손인 합천이씨 시암 이직현이 강학하던 곳에 세운 재실인데, 여기에서 이직현의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을 인출하였다. 대병면 성리 오동마을의 고사정(孤查亭)에서 문용의 『겸산문집(謙山文集)』을 인출하였는데, 고사정은 문용의 11세조가 되는 남평문씨 고사 문덕수가 만년에 강학하던 장소에 세운 재실이다. 문용은 61세 때인 1922년에 11세조인 문덕수의 유문을 정리하고 모아 『고사선생실기』를 간행하였다.⁷⁸⁾ 울곡면 본천리에 위치한 원천정(源泉亭)은 성주이씨 이경오가 강학하던 장소에 1912년에 세운 재실인데,⁷⁹⁾ 여기에서 성주이씨 이한철의 『죽파집(竹坡集)』을 인출하였다.

용주면 황계리의 경의당(景義堂)에서 김문기(1399-1456)의 『백촌선생유사(白村先生遺事)』를 인출하였다. 경의당은 단종 복위운동에 참가한 충의공 백촌 김문기의 신주를 모신 백촌부조묘(白村不祧廟)⁸⁰⁾ 곁에 있는 재실⁸¹⁾인데, 이곳에서 김문기의 행적을 기록한 『백촌선생유사』를 인출하였다. 황계리의 상황계는 1746년경 김녕김씨의 선조가 충청도 옥천에서 이주해와 살면서 형성된 자연마을이다. 김문기의 신주도 단종 복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후손들이 이주하였던 경북 김천군의 지례⁸²⁾에서 옮겨와 이곳에서 모시고 있다.⁸³⁾

75) 이갑규, 김신곤, 김봉규, 『한국의 혼 樓亭』 (서울: 민속원, 2015), 11.

76) 李次相, “碧寒亭記,”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2002), 1344-1345.

77)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683.

78) “겸산(謙山) 문용(文鏞),” 합천 땅 그리고 쪽빛 하늘, <<http://cafe.naver.com/hapcheonlife/535>>

79) 郭鉤, “源泉亭記,”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 『陝川樓亭錄』 (합천: 합천군, 2002), 426-427.

80) 부조묘(不祧廟): 불천위 제사의 대상이 되는 신주를 둔 사당. 본래 4대가 넘는 조상의 신주는 사당에서 꺼내 묻어야 하지만 나라에 공훈이 있는 사람의 신위는 왕의 허락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불천지위(不遷之位)가 된다. 따라서 불천지위가 된 대상은 신주를 사당에 계속 두면서 기제사를 지낼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81)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1096.

82)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김천) 섬계서원(剡溪書院),” 『향토문화전자대전』, 2018.2.2. 접속, <http://www.grandculture.net/ko/Contents/Contents?contents_id=GC03201179>.

봉산면 술곡리는 경주최씨 집성촌으로⁸⁴⁾ 율곡 이이를 향사하는 옥계서원에서 최병식의 『옥간집(玉澗集)』을 인출하였다. 이는 인조반정 이후 북인이 몰락함에 따라 봉산면 술곡리의 경주최씨 문중은 학문적·정치적으로 율곡학파의 노론계를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쌍백면 욱리 묵동의 노백서사는 초계 출신 정재규(鄭載圭, 1843-1911)가 도를 강론하던 곳으로⁸⁵⁾ “丙子暮春老 柏書舍活印”이라는 인기로 미루어 볼 때, 이곳에서 정재규 사후인 1933년에 『노백헌선생문집(老柏軒先生文集)』 19권 25책이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정진 문인으로 주리론과 위정척사사상에 바탕을 둔 노사학파가 서부경남에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한 정재규는 김홍집의 개화론에 반대하여 위정척사론을 주장하고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노론의 송병순, 송병선, 전우 등이 기정진의 학설을 배격할 때, 정재규는 기정진의 주리론이 결코 주희나 이이의 학설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옹호하였다.⁸⁶⁾

이처럼 합천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소는 선현의 제향공간인 재실, 선현 추모와 선현의 연구·교육 공간이던 누정과 당, 서사, 서당 등이다. 이는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혈연을 중심으로 한 혈연공동체가 선현을 선양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업임을 말해준다.

3.3.4 인쇄자 분석

합천지역에서 목활자본 문집을 인쇄한 각수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관권기의 인쇄자, 각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목활자본 문집의 인쇄자 분석

지역(인원)	인쇄자명	종수	주소	서명(저자)
합천 (10인)	권재홍	1	대병면 장단리 935	금리문집(錦里文集, 권직희)
	김만중	2	묘산면 안성리	백촌선생실기(白村先生實記, 김문기) 남계선생문집(南溪先生文集, 이종무)
	金永善	1	봉산면 노파리 48	정산선생문집(靖山先生文集, 송호근)
	文正浩	1	대병면 성리 53	겸산문집(謙山文集, 문용)
	朴鎬翼	2	봉산면 송림리 63	수서시(壽瑞詩, 이정) 농암회갑시(農菴回甲詩, 이희로)
	鄭光彦	1	쌍백면 욱리 868	난조유고(蘭樵遺稿, 이정두), 1935
	정현병	2	쌍백면 욱리 897	동천문집(東泉文集, 문정유), 1922 죽파집(竹坡集, 이한철), 1922
	정현질 (鄭鉉晳)	2	쌍백면 욱리 518 쌍백면 욱리 784	소심정문집(小心亭文集, 전규환), 1937 오과문집(梧坡文集, 최병호), 1927
	차병무	2	덕유면 장리 484	설학선생문집(雪壑先生文集, 이대기) 해사집(海史集, 차석호, 2종)
	차병학	1	청덕면 성대리 452	운계집(雲溪集, 차홍섭)

83)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1095.

84)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188.

85) 權載奎, “老栢書舍記”,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編輯委員會 편(2002), 822-823.

86) 김봉곤(2010), 29-30.

지역(인원)	인쇄자명	종수	주소	서명(저자)
산청 (2인)	權宇容	1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775	매하유고(梅下遺稿, 윤하식), 1936
	權載義	1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원계 778	옥간집(玉澗集, 최병식), 1959
고령 (2인)	全海宅	1	고령군 쌍림면 신촌동	조암선생문집(鈞巖先生文集, 한석필)
	全鋪宇	1	고령군 쌍동면 합가동 199번지	용산범국회록(龍山泛菊會錄, 정필달 등)
창녕 (1인)	徐正淑	1	창녕군 창녕면 조산리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이직현)
4지역	15인	20종		

목활자 인쇄자인 각수는 목활자를 지고 다니면서 책을 발행하고자 수요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일정 기간 머무르면서 책을 조판하여 인출했던 이동식 출판업자이다. 70종의 목활자본 문집 가운데 판권기가 있는 문집은 20종이며, 각수는 위 <표 9>과 같이 15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각수 15인 가운데 합천에 거주하는 각수가 10인(66.7%)이고 합천의 서남에 위치한 산청의 2인, 합천 동북쪽인 고령의 2인, 합천의 동쪽인 창녕의 1인이 목활자본을 인출하였다. 합천 거주 각수 10인 가운데 쌍백면 육리 거주자는 정광호, 정현질, 정현병의 3인으로, 번지수만 다르다. 쌍백면 육리는 초계정씨 집성촌으로 초계정씨의 재실인 물계정(勿溪亭)과 노백헌 정재규를 위한 재실인 노백서사와 사림에서 정재규를 향사하는 경덕사(景德祠)가 있는 곳이다.⁸⁷⁾ 이로 미루어 이들도 초계정씨일 것으로 추측된다. 산청에 거주하는 권우용과 권재희는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 775번지와 778번지로서 인출한 시기가 1936년, 1959년으로 부자관계이다.⁸⁸⁾

합천, 초계와 삼가에는 닥나무가 자생하여 종이 생산이 용이하며, 각수도 10인이나 되어 서적을 인출하기가 유리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⁸⁹⁾ 이는 합천 지역이 학문활동이 활발하여 문헌 간행의 수요가 많은 곳임을 의미한다.

3.4 문집의 형태사항 분석

3.4.1 권책수 분석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의 형태사항 가운데 권책수가 문집의 유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위해 문집의 권책수와 문집의 유형, 즉 문집, 유집, 실기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87)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1998), 817.

88) 송정숙(2002), 59.

89) 경남지역 간행 목활자본 족보와 문집을 연구한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에서는 합천의 각수가 16인으로 조사되었다. 송정숙,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402.

<표 10> 문집 권책수와 문집 유형과의 관계 분석

책수	권책수	전체	문집	유집	실기	비고(서명)		
		종수	종수	종수	종수			
1책	不分卷 1책	9	6			용산범국회록(龍山泛菊會錄), 수서시(壽瑞詩) 농암회갑시(農菴回甲詩), 약견시집(嶽堅詩集) 한사선생연보(寒沙先生年譜), 내암선생가장(來庵先生家狀)		
					1		사미선생유집(四美先生遺集)	
						2	임헌실기(林軒實記), 황강선생실기(黃江先生實記)	
	2권1책	12	3	4			죽파집(竹坡集), 조암선생문집(鈞巖先生文集) 당암선생문집(堂庵先生文集)	
								수졸재유고(守拙齋遺稿), 운포일고(雲圃逸稿) 난초유고(蘭樵遺稿), 아호유고(鵝湖遺藁)
							5	구암실기(龜嶼實記), 구담선생실기(龜潭先生實記) 고사선생실기(孤查先生實記), 후지당실기(後知堂實記) 월와일고(月窩逸稿)
	3권1책	4	3			향계선생문집(香溪先生文集), 임제선생문집(立齋先生文集), 혁림재집(赫臨齋集)		
					1		눌수유고(訥叟遺稿),	
	4권1책	2	1		1	금리문집(錦里文集)		
	6권1책	1	1			매하유고(梅下遺稿)		
6권1책	1	1			금애집(錦厓集)			
소계	28	14	7	7				
2책	3권2책	1	1			외암문집(畏菴文集)		
	4권2책	11	11			연파문집(淵坡文集), 윤산문집(輪山文集) 해사집(海史集), 창와문집(蒼窩文集) 송풍계선생집(松風齋先生集), 구주선생문집(鷗洲先生文集) 창주선생문집(滄洲先生文集), 설학선생문집(雪壑先生文集) 남계선생문집(柑溪先生文集)(2), 오산선생문집(吾山先生文集)		
	5권2책	5	5			경승재문집(敬勝齋文集), 동천문집(東泉文集) 이여당문집[삼주집](二如堂文集[三洲集]) 경계선생문집(敬齋先生文集) 노백헌선생문집부록(老柏軒先生文集附錄)		
	6권2책	3	2		1	강재문집(強齋文集), 소심정문집(小心亭文集) 육효록(六孝錄)		
	7권2책	2	2			몽관집(夢關集), 옥간집(玉澗集)		
	소계	22	21	0	1			
	3권3책	1			1	백촌선생유사(白村先生遺事)		
5권3책	2	2			경암선생문집(敬菴先生文集), 노파선생문집(蘆坡先生文集)			
6권3책	1	1			운계집(雲溪集)			
7권3책	1	1			오파문집(梧坡文集)			
소계	5	4	0	1				
4책	7권4책	2	2			겸산문집(謙山文集), 오파문집(梧坡文集)		
	8권4책	1	1			오산집(五山集)		
	12권4책	1			1	합천이씨세고(陝川李氏世稿)		
	소계	4	3	0	1			
5책	10권5책	2	2			창수집(蒼樹集), 해사집(海史集)		
	소계	2	2	0	0			
6책	11권6책	1	1			유하연방집(柳下聯芳集)		
	12권6책	1	1			파산세고(坡山世稿)		
	소계	2	2	0	0			
7책	13권7책	1	1			악양집(岳陽集)		
	15권7책	1	1			내암선생문집(來庵先生文集)		
	소계	2	2	0	0			

책수	권책수	전체	문집	유집	실기	비고(서명)
		종수	종수	종수	종수	
8책	15권8책	1	1			농산문집(農山文集)
	16권8책	1	1			정산선생문집(靖山先生文集)
	소계	2	2	0	0	
10책	20권10책	1	1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
12책	22권12책	1	1			서강선생문집(西岡先生文集)
25책	49권25책	1	1			노백헌선생문집(老栢軒先生文集)
	소계	3	3	0	0	
계		70	53	7	10	

위 <표 10>에서 보듯이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는 불분권1책부터 49권25책까지 매우 다양한데, 전체 70종 가운데 1책이 28종(40%), 2책이 22종(31.4%), 3책은 5종(7.1%), 4책은 4종(5.7%), 5책·6책·7책·8책은 각 2종(2.9%), 10책·12책·25책은 각 1종(1.4%)으로 1~2책이 50종(71.4%)으로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책수가 늘어날수록 종수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집 유형별로 보면, 우선 유집은 전체 7종 가운데 7종 모두가 1책인데, 불분권1책(1종), 2권1책(4종), 3권1책(1종), 4권1책(1종)으로 2권1책이 가장 많다. 실기는 전체 10종 가운데 7종이 1책으로 불분권1책(2종), 2권1책(5종)이며, 나머지 3종은 6권2책, 3권3책, 12권4책이다. 이 가운데 6권2책과 12권4책은 1인의 저작인 별집이 아니라 저자가 다수인 합집이다. 6권2책의 『육효록』은 저자가 의성김씨 3대 6인이고, 12권4책의 『합천이씨세고』는 저자가 합천이씨 10대 11인으로 거의가 1인당 1권씩으로 개인별로 별책으로 장책하기에는 분량이 적어 합집으로 인출하였다고 파악된다.

반면에 문집은 53종 가운데 1책은 14종(26.4%), 2책은 21종(39.6%)으로 1~2책이 35종으로 문집의 66%를 차지한다. 문집은 유집이나 실기와 달리 3책 이상이 18종(34%)으로 나타났다. 5책 이상 13종은 모두 문집이고, 유집과 실기는 1종도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책 이상도 3종이나 되니, 20권10책은 이직현(李直賢, 1850-1928)의 『시암선생문집(是庵先生文集)』이고, 22권12책은 류원중(柳遠重, 1861-1943)의 『서강선생문집(西岡先生文集)』이며, 49권25책은 정재규(鄭載圭, 1843-1911)의 『노백헌선생문집(老栢軒先生文集)』이다. 삼가 출신인 류원중은 최익현·정재규의 문인으로 1905년(광무 9) 을사조약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 체결되자, 스승인 정재규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 5적(賊)을 성토하려고 공주(公州)까지 갔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정산(定山)으로 가서 최익현과 함께 전국의 선비들에게 노성(魯城)에서 거의(擧義)할 것을 포고하고, 그 일이 실패하여 통곡하면서 돌아왔다. 1910년에 일본에 의해 나라가 망하자, 1919년에 아들인 근수(瑾秀)를 서울에 보내어 고종의 장례식에 참여케 하였다. 근수가 돌아와서는 부근의 인사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자, 그에 연루되어 합천 경찰서에 구속되자, 저들이 주는 음식을 일체 입에 넣지 않은 채 항거하였다.⁹⁰⁾ 초계출신인 정재규는 기정진 문하에서 학문에 몰입하였으며, 제자로는 정면규(鄭冕圭)·권운환(權雲煥) 등이 있으며, 합천 경덕사(景德祠)에 봉안되었다. 문집은 서문이나 발문이 없어, 편집경위는

9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2002), “유원중(柳遠重).”

알기 어려우나 정재규가 생전에 거쳐하였던 노백서사에서 1936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3.4.2 판식 분석

합천지역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70종이 간행 시기에 따른 판식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1800년대부터 50년 단위로 판식의 형식을 살펴보니,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 보듯이, 합천지역 간행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판식을 간행시기에 따라 구분한 결과, 1800년대에는 사주단변, 유계, 10행 20字,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다수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쌍변, 유계, 10행 20字,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1900년대 후반기에는 사주쌍변, 유계, 10행 20字, 상이엽화문어미가 다수이다. 그런데 18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단변(3), 사주쌍변(2)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단변(23), 사주쌍변(31)으로 사주단변과 사주쌍변의 비율이 2:3 또는 3:2의 비율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11>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시기와 판식과의 관계 분석

간행연대	종수	변란(종수)	계선	행자수(종수)	어미(종수)
1801-1850	5	四周單邊(3) 四周雙邊(2)	有界(5)	10行 18字(1) 10行 20字(4)	上白魚尾(1)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3) 上下內向混葉花紋魚尾(1)
1851-1900	6	四周單邊(6)	有界(6)	10行 18字(1) 10行 19字(1) 10行 20字(4)	上二葉花紋魚尾(1)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5)
1901-1950	54	四周單邊(23) 四周雙邊(31)	有界(54)	9行 18字(1) 10行 18字(3) 10行 19字(3) 10行 20字(39) 10行 22字(8)	上白魚尾(1) 上二葉花紋魚尾(4) 上三葉花紋魚尾(2) 上下一二葉花紋魚尾 上下內向一、二葉花紋魚尾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45)
1951- 2000	4	四周單邊(3) 四周雙邊(1)	有界(4)	10行 20字(3) 10行 22字(1)	上二下一葉花紋魚尾(1) 上二葉花紋魚尾(2)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1)
미상	1	四周雙邊(1)	有界(1)	10行19字(1)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1)
계	70				

4. 맺음말

경남 합천에서 간행된 문집 70종을 대상으로 문집의 유형, 저자사항, 간행사항, 형태사항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1) 남명 조식은 삼가 외토리 외가에서 태어나 5살까지, 26살 때 부친상을 당해 3년상을 마칠 때까지, 45살부터 61살 산청으로 거처를 옮기기 전까지 살며 제자를 양성했음에도 그의 문집이

합천에서 목판이나 목활자로 인출되지 않았다. 수제자 내암 정인홍이 합천 출생이지만 인조반정으로 처형되고 역적으로 몰려 1908년에 이르러 신원되었기 때문에 그의 문집은 1911년에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합천에서 조식과 정인홍이 강학하였기 때문에 선조와 광해군대에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고, 임란때 창의한 자가 많았다.

2) 학문적 전통은 조선 전기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인 한훤당 김굉필과 일두 정여창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남명 조식과 내암 정인홍의 학통을 이은 북인의 남명학파가 우세한 가운데 인조반정 이후 율곡 이이를 향사하는 옥계서원과 송병순과 기정진 문인을 중심으로 서인, 노론계의 학통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진상 문인과 성재 허전 문인을 중심으로 남인계의 학통이 병존하였다.

3) 문집을 문집, 유집, 실기로 3구분하고, 합천에서 간행된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문집은 53종(76%), 유집과 실기가 17종(24%)으로 3: 1의 비율이다. 90%인 63종이 1인의 시문으로 이루어진 별집이며, 시만 모은 시집은 3종(4%)에 불과하고 67종이 시문(詩文)으로 이루어졌다.

4)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저자 65인의 출생연도를 분석하면, 19세기 출생자가 26인으로 전체의 40%, 16세기 출생자가 20인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한다. 반면에 17세기부터는 7인(11%)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18세기 출생자는 5인(8%)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를 통해 합천 지역의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는 16세기 출생자와 19세기 출생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조반정으로 인한 북인의 몰락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된다.

5) 목활자본 문집의 저자 65인의 성관을 분석하면, 문집을 간행한 34개 성씨 가운데 남평문씨가 6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천이씨·초계정씨·연안차씨가 4종, 진양강씨 등 8개 성씨가 3종, 고령박씨 등 7개 성씨가 2종, 연일정씨 등 14개 성씨가 1종을 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청지역의 경우, 91종의 목활자본 문집을 31개 성씨가 간행하였는데, 1종부터 23종까지 성씨간 편차가 크다. 이에 비해 합천지역은 목활자본 문집이 여러 성씨에 걸쳐 비교적 고르게 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 합천지역 문과급제자 49명의 성씨가 창녕조씨 6명, 남평문씨 5명을 비롯하여 27개 성씨에 분포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 합천에서 목활자본 문집 70종의 간행년을 분석하면, 1826년부터 1959년까지 133년 동안 간행되었는데,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40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1940년 이후 대폭 줄어들었다. 이는 문집 인쇄가 목활자 인쇄보다 간편하고 노력이 적게 드는 신식 석판인쇄나 연활자 인쇄로 대체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40년 동안에 51종(73%)이 간행된 것을 볼 때 목활자본 문집은 조선조말기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사회적 격변기에 전통지식인의 학문과 사유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저자 사후 문집 간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면, 저자 사후 10년 이내에 23%에 해당하는 16종이 간행되어 가장 많았고, 25종(35%)이 저자 사후 50년 이내에 간행되었다. 사후 101-200년은 5종만 간행된 데 비해 사후 201-300년에 18종(26%), 사후 301-400년에 13종(19%)이 간행되었다. 이는 저자 사후 가까운 기간 내에 문집 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0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목활자본 문집이 간행되었고, 합천 지역 인물이 선조-광해군대에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문집은 사후 10년 이내에 가장 많지만 유집은 저자 사후 50년 이후에, 실기는 저자 사후 250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8) 목활자본 문집의 발행소(처)를 분석하면, 재실이나 종가 등의 개인집, 누정(당 포함) 등에서 주로 간행되었다. 선현을 위한 제향 공간인 재실이나 선현 추모와 선현의 연구와 교육공간이던 누정에서 목활자본 문집 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목활자본 문집 간행사업이 혈연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족의 학문적 역량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행되었음을 말해 준다.

9) 합천과 초계와 삼가는 종이재료인 닥나무의 자생지로 문집 간행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인쇄자, 즉 각수를 10인이나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합천 지역이 지식 정보의 생산과 유통, 즉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 준다.

10) 목활자본 문집의 권책수를 보면, 1책이 28종(40%), 2책이 22종(31%)으로 70% 이상이 1-2책이다. 문집의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니, 1책의 비율이 유집(100%), 실기(70%), 문집(26%)의 순으로 유집은 모두 1책이고, 실기의 다책본은 합집이고, 문집은 불분권1책부터 49권25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집과 실기는 저자 사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고 난 후 편찬, 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1) 목활자본 문집의 판식을 분석하니, 1800년대에는 사주단변, 유계, 10행 20자,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가 다수이고, 1900년대 전반기에는 사주쌍변, 1900년대 후반기에는 상이엽화문어미가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참고문헌>

『大東野乘』, 『大東地志』,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仁祖實錄』, 『高宗實錄』.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편. 『陝川地域의 歷史와 文化』. 합천: 합천문화원, 2000.

김봉곤. “嶺南地域 蘆沙學派의 成長과 門人 鄭載圭의 役割.” 『남명학연구』 제29권(2010. 6), 29-75.

박몽구. “일제 강점기 한민족 출판 연구.” 『韓國出版學研究』 제36권 제2호(2010. 12), 89-124.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文化遺蹟分布地圖: 陝川郡』. 합천: 합천군, 2005.

송정숙. “한국의 인쇄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의 문화유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8.

송정숙. “영남지방 간행 목활자본 연구.” 청주고인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한국고활자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2). 39-62.

송정숙. “경남의 목활자본 연구.”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81-404.

- 송정숙. “조선시대 영남의 목활자본 연구.” 大東漢文學會 全國學術大會 『2015年 秋季學術大會 발표논문집』.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2015.10.30.
- 송정숙. “경남 산청지역 목활자본 문집의 간행양상.” 『書誌學研究』 제68집(2016. 12). 201-245.
- 옥영정. “16세기 후반~17세기 조선의 목활자인쇄와 출판문화적 의미.” 『한국문화(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2(2015). 21-46.
- 이갑규 · 김신곤 · 김봉규. 『한국의 혼 樓亭』. 서울: 민속원, 2015.
- 이수건. “죽보와 양반의식.” 『한국사시민강좌(일조각)』 제24집(1999).
-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 차윤정. “로컬(리터)의 개념적 이해와 로컬리티 구성요소.” 『로컬리티의 인문학 10년: 소통과 확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로컬리티인문학연구원 제10회 국내학술심포지엄 자료집,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2017.3.10.: 31-50.
- 채휘균. “합천(陝川) 지역의 성씨분포와 정착과정.” 『慶南文化研究』 23집(2002).
- 최석기 · 김현진 · 구경아 · 강현진 · 강지옥 · 구진성. 『19세기 경상우도 학자들 中』. 서울: 보고사, 2014.
-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편. 『陝川郡史』 제1권. 합천: 합천군사편찬위원회, 2013.
- 陝川文化院 編. 『陝川人物考』. 합천: 陝川文化院, 2006.
- 陝川文化院 陝川樓亭錄 편집위원회 편. 『陝川樓亭錄』. 합천: 합천군 · 합천문화원, 2002.
- 합천지명사 편찬위원회 편. 『陝川地名史』. 합천: 합천문화원, 1998.
- 황위주, 김대현, 김진균, 이상필, 이향배.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 간행 양상과 그 특성.” 『민족문화(한국고전번역원)』 제41집(2013. 6). 203-296.
- 경상대학교 문천각. 남명학교문헌시스템. <<http://nmh.gnu.ac.kr>>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yujanggak.snu.ac.kr/home/main.do?siteCd=KYU>>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www.itkc.or.kr/itkc/Index.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http://www.ugyo.net>>
-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index.aks>>
- 합천군청. <<http://www.hc.go.kr/main/>>
- 합천박물관. <<http://mus.hc.go.kr/main/>>